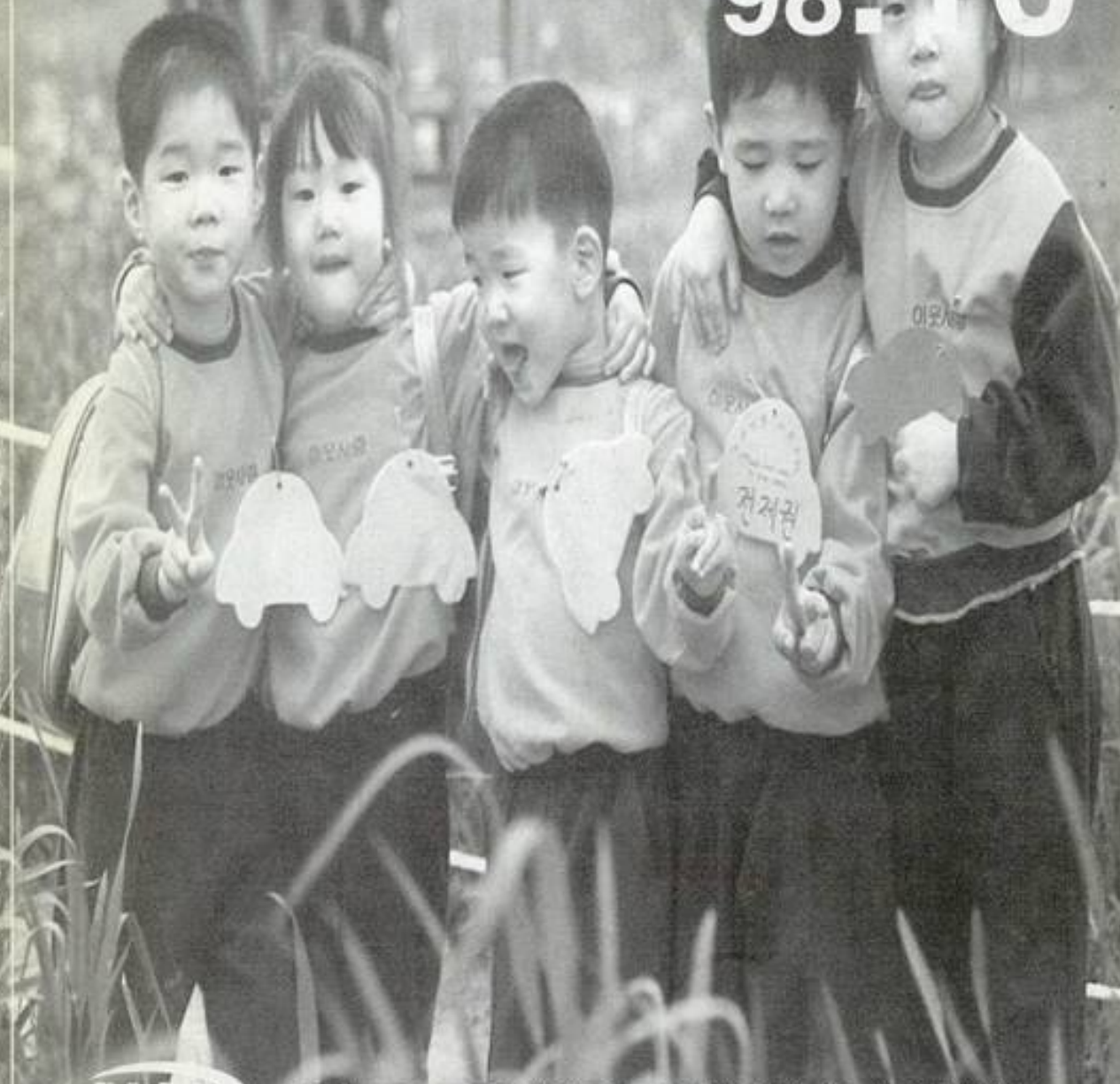


769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TEL: 275-80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떤간에, 남자인지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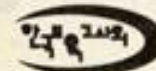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못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선생님 멋있게 찍어주세요」
맑은 가을 하늘과 풍성한
자연의 선물을 담고 친구들과
함께한 아이들.

사진: 인천 이웃사랑어린이집
- 민숙촌 소장 -

1998년 10월호(통권 64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무슨이 박정애, 이선주, 김희정/펴낸날 1998년 10월 1일

우리네

아이들

'98년 10월호

통권 64호

권두언	4
교육제안	6
보육정책	11
칼럼	22
기획	24
연장교육	27
바깥놀이 풍경	30
연장소식 1, 2	31
어린이와 건강	36
중국육아기행	46
책서평	52
좋은 그림책 소개	54
Q and A	56
이달에 권하는 책	57
오사카에서 온 편지	58
육아일기	60
사이버정보망	61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62
우리들의 목소리	63
세상읽기	66
보육계 풍향	68
소식과 소식	71
알림남	74
편집부에서	76

결식아동과 보육	정병호
관점을 달리한 주제접근	김연숙
유아교육 개혁 일단락!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편집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동기!	정희연
TV의 얼굴알기	이정주
유아들을 위한 과학활동	전경숙
사진으로 보는 우리 아이들의 바깥놀이 풍경	강영신
그림책 감화를 마치고/"자연과 친구 되는 신나는 창조학교"를 마치고	지규남/윤은주
유,소아에서의 감기에 대한 이야기	고시원
7일간의 중국 여행(1)	서정은
영아·한살바기를 위한 교육활동	조선경
재빨리와 거인	김향희
이것이 궁금해요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빠앗긴 정서, 빠앗긴 문화	최은경
9개월, 우리 가락이 좋을씨고!	변미영
알미운 아이	이선홍
평등세상 만들기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평등어린이 집에서 생긴 일	평등어린이집
어느 여름날의 독백	안광석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	위양자
보육계 풍향	
소식과 소식	
알림남	
편집부에서	

결식 아동과 보육

정병호 · 공동육아연구원장, 한양대 교수

밥을 못 먹는다고 한다. 우리네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한다. 잠시 살림이 좁아졌다고 방방곡곡에 고기 굽는 연기가 진동하고 남아 버린 음식이 매년 8조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느새 결식 아동이 수 천, 수 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토록 흥청망청하면서 바로 북쪽에 살고 있는 한민족 아이들의 기근을 감건너 불보듯 하고 지내던 우리들에게 내린 천벌일까. 이른바 IMF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버리고 있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6,553명의 아이들이 기아, 미아, 사생아로 이른바 "요보호아동"이 되었다. 이번 겨울과 내년 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버려야만 할까. 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앞으로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자라나게 될 것인가. 어른들은 한때의 경제위기라고, 앞으로 1, 2년 안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자칫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육은 우리 사회의 인간성과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5년전 일본에서 지방자치와 보육제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을 때 보육원(어린이집)에서 몇 명의 편부모 가족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부모들은 한결 같이 편부모의 아이들을 거의 무료로 보육해 주는 제도가 없었다면 자신도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눈물지며 이야기하였다. 물론 아무리 어린이집이 뒷받침을 잘 해 주어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아이와 함께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복지제도란 그런 것이다. 아이를 버리게한 다음에 돌봐주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게 한 후에야 시작되는 모금운동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의지할 만한 이웃도, 친척도, 사회복지 제도도 없다. 개개인이 알아서 헤쳐나갈 길밖에 없는 것이다. 물에 빠진 어른은 제 한 몸도 살리기 벅찬 법이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우선 그 몸에서 떨어진 어린 아이 하나만이라도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도 인간답게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시대 보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먼저,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 결식아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의 결식은 식량 배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먹을 것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부터의 고립, 온전한 교육 기회의 상실 등 문화적 결핍도 아울러 문제가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일정한 피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화된 피해 아동들을 찾아내어 정서적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공동체적 노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선이나 요란한 구호활동

이것이 일시적인 구호활동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렵고,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현행 보육제도의 보다 철저한 개혁과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담당할 시민적 권리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미 몇몇 선구적인 보육현장(부스리기 선교회, 성남의 경기동부지역실업대책위, 서울 관악주민연대모임, 서울 창신동 해송어린이동지공동체 등)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 공부방 프로그램을 통한 결식아동 보호노력이 종합적 교육복지 모델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기존의 점심, 오후 간식에 더해서, 희망아동에 대한 저녁 급식제공과 연장 보육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섬세한 빈부, 지역,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프로그램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 보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구호활동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렵고,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현행 보육제도의 보다 철저한 개혁과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IMF 시대는 진정 우리 사회가 경험한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무한정 발전과 양적 팽창의 신화에만 매달려 온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육사업도 모순된 제도와 부실한 편법운영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이 시대에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지원도 해주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여야 한다.

우선, 부모의 취업 상태와 재산, 소득에 따른 차등적 보육료 책정과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대한 종합적이고 차등적인 지원 체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의 특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지원의 내용도 달라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도 하나의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안이한 획일적인 규제와 지원체제 만으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는 없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일찍이 우리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이 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구적 노력을 해 온 지역사회탁아소연합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단체이다. 그 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고자 애써온 경험과 실천은 IMF 시대에 희생이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창조적인 힘이 될 것이다. 오늘의 위기가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보육제도, 새로운 의미의 헤드스타트(Head-Start: 미국에서 1970년대에 빈곤계층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보육프로그램) 사업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점을 달리한 주제접근

김연숙 · 본회 회원, 전 썩썩이어린이집 교사

전 썩썩이어린이집 김연숙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가며 우리 교육활동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회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며 내용과 방식을 5차례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동체 지향을 위한 소그룹 활동과 대그룹 활동
3. 생활주제와 연관주제 활용
4. 관점을 달리한 주제 접근
5. 과도기적 교육계획안 사례-영아2세반

문제를 제기하며

생활주제 부분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매우 한정적이다. 실제 아이들의 관심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어지는 주제와 심지어 연관활동 까지 어느 시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강박관념-1년간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물론 아이들이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그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에는 이견이 없다. 단, 교육과정 중에 제공되는 일련의 주제들이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두 가지 주제접근법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주제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이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주제들과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찾아나가는 주제들, 전자의 경우에는 주제구성을 교사가 할 수 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들면 [내가 우리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 와 같은 활동을 통해 나-이웃과의 관계를 알기위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주제-' 부분에서 말했다시피 아이들의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주제구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정관념 부터 과감히 깨뜨려야 할 것이다. 이웃.....이웃은 고마운 사람들, 우리에겐 어떤 이웃이 있을까? 등 등의 설부른 주제구성을 하지 말고 먼저 아이들에게 이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웃에 대해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쉽고 편할 지,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웃에 대해 표현(언어나 그림 기타 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부터 교사 스스로 다시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교사가 어떤 계획도 미리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준비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많고 어느면에서는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아이들과의 생활은 함께하는 상호작용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완벽할 때 아이들은 의존적이며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아이인냥 하라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언제나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어른의 위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에 관하여

전자의 주제에 관해서는 전 호의 내용을 통해 대부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관점을 달리한 주제 접근에서는 이 두 번째 주제에 관해 다루려고 한다.

두 번째 형태의 주제는 아이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들을 스스로 조직화 하고 그로인해 자기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교사가 어떤 목적이나 활동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흔히 다루게 되는 '공룡'의 경우 공룡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며 교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수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 경우 대부분은 아이들과 먼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점차로 알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주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주제들-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제들에 있어서는 역시 폐쇄적이다. 아니,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와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야할까?

왜 프로젝트를 선호하는가?

현재 시설과 교사들에게는 두 가지 판이한 수업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한 가지는 기존의 주제(또는 단위) 중심의 프로그램식 수업이며 또 한가지가 프로젝트식 수업이다. 프로젝트식 수업은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교사들은 저마다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프로젝트를 선호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는 진행방식이 아동중심이며 또, 표상을 중요시 한다. 속된말로 뭔가 성과물이 많이 남는다. 왜? 진행방식 자체가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흥내 내기에 앞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흥내낸다는 표현을 쓴 것은 자칫 프로젝트의 수업이 교사

주도로 흘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프로젝트를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프로젝트 같은 방식은 어려울 것이다. 표현력이 부족한 저연령에 또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공간이나 환경적으로 제한이 많은 시설이라면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건들만 갖추어져 있다면 아이들의 생각을 여는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싶다.

아이들의 생각 열기

아이들 중에는 남보다 창의적인 아이, 표현력이 좀더 풍부한 아이, 생각이 깊은 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기에 아이들의 창의성을 끌어내고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하고, 듣고, 배우고, 암기하는 학습방식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학습방식을 선호하기에 낯집승과 길집승을 분류하는 카드놀이 보다 동물원 가기를 더 좋아한다. 아이들의 머리를 '받아들이고 입력하는 머리'에서 '느끼는 머리'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후에야 어떤 식으로건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느끼지 않은 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해봤자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를 구성할 때에도 먼저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놓고 그 것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면 생동감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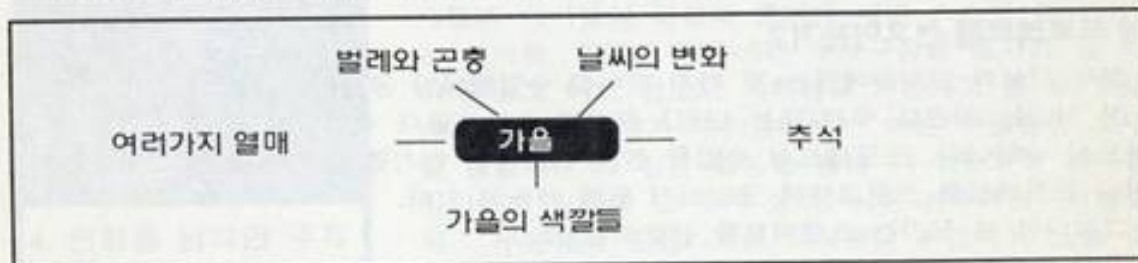
관점을 달리한 주제 접근

그러면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따로 [활동사례]를 정리하지 않고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주제가 아마도 '가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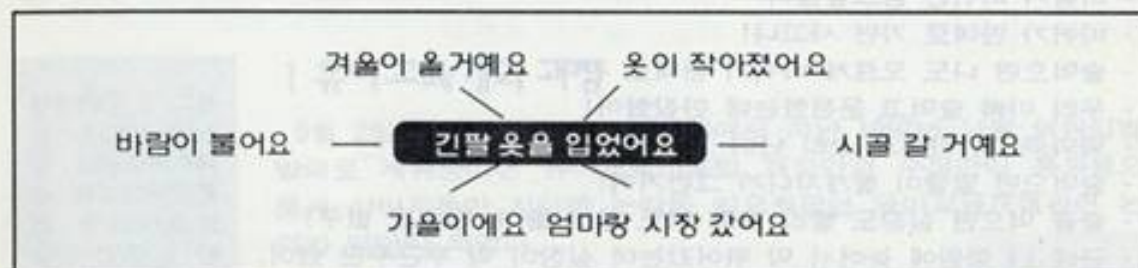
그렇다면 주제망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작성했을 것이다.



이 주제망의 근거는 -가을과 관련한 모든 것-이다. 아이들이 가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나 아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주제망인 것이다. 물론 각 주제에 따른 연관활동으로 세분화 될 때 모든 것이 고려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한계는 교사가 계획한 것 이외의 것들은 담아내기가 힘

들다는 것이며 철저히 교사의 생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려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가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점을 달리한 주제 구성을 한다면 첫째로 포괄적인 가을이 아니라 가을의 어느 한 부분, 아이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접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과의 생각열기를 통해서 주제 구성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가을을 중심주제로 잡은 경우엔 가을과 연관된 활동 가을과 연관된 생각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소 한계성을 갖게 되지만 아이들이 가을을 느끼는 어느 한 부분을 중심 주제로 잡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관심 정도에 따라 가을에 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옷에 대해서, 또는 우리 몸의 성장에 대해서, 또는 쇼핑에 대해서 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예는 가상의 예이긴 하지만 가을이라는 주제에 관해 반드시 모든걸 배우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한 상태에서 계획하게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만일 긴 옷으로 시작해 →옷이 작아졌어요→나의 몸의 변화로 주제가 진행된다면 비록 가을과는 관계가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능동적인 주제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도달점이 어디든지간에 흥미가 이어지기만 한다면 바람직한 주제진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교사에 의해서 연관된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와는 사뭇 다른데 종종 교사 주도로 계획되는 경우에도 아이들의 심리와 흥미도를 잘 포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찌보면 프로젝트식과 유사하나 정확히 말하면 프로젝트의 전단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분명한 차이는 한 주제에 관해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활동사례를 바탕으로 진행과정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다.

■ 시작활동-컵굴러 보내기 게임

동그랗게 다리를 벌리고 모여 앉아 종이컵을 굴려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와 하는 것을 보고 [컵굴리기]라는 주제를 채택함.

■ 중심주제-컵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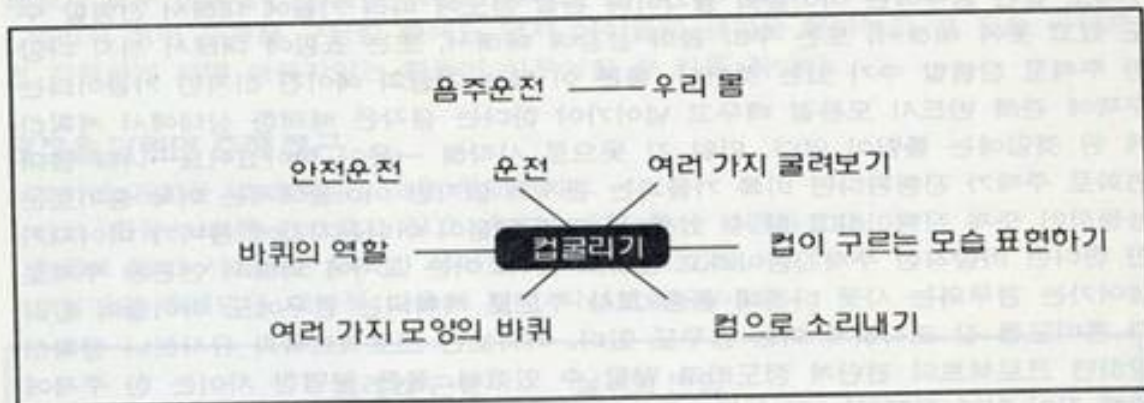
아이들이 각자 자기 컵을 가지고 굴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함.



□ 생각열기 첫번째

- 컵이 똑바로 안 굴러가
- 자꾸만 판데로 가
- 왜 그럴까?
- 똑그랴게 안생겨서. 차 바뀌는 똑그래.
- 아니야, 이렇게~ 똑바로 생겼어
- 비행기 바뀌는 똑그랴잖아
- 바뀌가 판데로 가면 사고나!
- 술먹으면 나도 모르게 바뀌가 판데로 간대.
- 우리 아빠 술먹고 운전했는데 안잡했어!
- 와와와-야, 마이크 소리 난다
- 술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그런거야!
- 술을 먹으면 심장도 빨리 뛰고 피도 빨리 돌아, 정신도 없구!
- 근데 나 학원에 늦어서 막 뛰어갔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했어.
- 엄마랑 목욕탕 갔을때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다!

□ 주제구성



정리이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바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려 했다면 다소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작은 활동이나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중심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뻗어나가는 방식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방식에 비해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하며 교사주도를 상당부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주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교사주도로 할 수 밖에 없는 연령의 경우 오히려 바람직한 교사 주도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여러번 반복 실행 하다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데 더 익숙해 질 것이며 좀 더 새로운 활동들에 교사 자신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유아교육개혁 일단락!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편집부

I 유아교육개혁 과정

편집자주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아교육개혁이 유아교육진흥법 수정안으로 일단락되었고 영유아보육법과 세부 지침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유아교육개혁 과정, 유아교육진흥법 수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을 소상히 소개하니 차분히 읽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9월 2일 196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997년 11월 의원입법 발의로 계류중이던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반기동안 지리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유아교육개혁관련 논의가 일단락 되었다.

그간 유아교육개혁 논의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단체들의 토론회, 공청회 등이 여러차례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지나친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게 진행되어 온 측면도 있다.

0~2세 영아는 복지부 주관하의 영아보육시설로 3세 이상 유아는 교육부 주관하의 유아학교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은 여러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본래 기능과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는 불가하다는 주장과 여러 가지 현재적 조건과 상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었고 어떠한 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와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제도개혁을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의견이 개진되었다.

지난 5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안)관련 정책기획단을 꾸려 5차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정책기획단에는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아교육공교육체제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등 관련단체들과 관련행정부처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각기 찬성,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여 5차의 회의가 마감될때까지 단일한 의견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각단체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이후 지난 9월 2일 임시국회에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현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안) 관련 움직임은 일단락지어지게 되었다.

그간 우리회는 작년 10월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좀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아보육/교육제도 개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장대로 어떻게 현재 보육계의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소하여 질적발전을 꾀할 것인지, 정말 바람직한 제도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가 개방적으로 연구,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될지도 모른다.

Ⅱ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법률안

수정이유

유아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의 조문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동법안의 모법적 성격을 가진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하여 볼 때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현행과 같이 유치원으로 수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국회법제91조(변안)의 규정에 의거 번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제2조제5호의 유아학교에 대한 정의는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던 유치원에 관한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으로 분리·제정되었으므로 법체계상 “유아학교”를 현행과 같이 “유치원”으로 수정함.

나. 안제4조제3항은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사립유치원 등에 무상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시설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적어 사립유치원에의 취원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공립유치원 수용시설의 과부족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아학교를 유치원으로 수정함에 따라 안부칙제2조내지 제5조의 보육시설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규정 및 타법개정에 관한 조문을 모두 삭제함.

수정내용(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내 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교육”이라 함은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 교육을 말한다. 3. “유아학교”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기타의 자 등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원안과 같음) 2.(원안과 같음) 3. “유치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4..... 기타유아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신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3.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과 보급 4.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5. 유아교육의 설립·운영 6.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7.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시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당 초 안	수 정 내 용
② 국가는 유아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유아학교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유아학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아학교에 준하는 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유아교육진흥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의 정책의 수립·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업과정) ① 유아학교는 다음 각호의 수업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반일제과정: 1일3시간이상 수업과정 2. 시간연장제과정: 1일5시간이상 수업과정 3. 종일제과정: 1일8시간이상 수업과정 ② 학생의 보호자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안 제1항과 같음) 1. ~ 4. (원안 제1호내지 제4호와 같음) 5. 유치원..... 6. ~ 7. (원안 제1호내지 제4호와 같음) ③ (원안 제2항과 같음) 제4조(무상교육) ① (원안과 같음) ②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부담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삭제) ① 유아교육정책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② (원안과 같음) ① 유치원은 1. 반일제과정 : 1일3시간이상 5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2. 시간연장제과정 : 1일5시간이상 8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3. 종일제 : ② 유아의

당 초 안	수 정 내 용
제7조(학교급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등 유아복지증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지도위원회) ① 시·도 교육감 제8조(장학지도위원회)은 유아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아학교대표, 학부모대표 등으로 장학지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아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대상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유아복지증진).....급식 등 제8조(장학지도위원회) ①.....유치원.....유치원 대표..... ② (원안과 같음) 제9조(비용의 부담).....대통령이..... 제10조(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구 포함) 사립 유치원.....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1999년 3월 1일.....

▶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된 부칙조문 ◀

제2조(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로 본다.(삭제)
- ② 이 법 시행당시 교육법에 의한 행당 교원자격을 가지고 유치원에 재직중인 교원은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삭제)

제3조(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1998년 3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보육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청의 심사를 거쳐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다.(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로 전환한 보육시설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004년까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삭제)
- ③ 이 법에 의하여 유아학교로 전환되는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는 2000년까지 교육법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삭제)
- ④ 이 법에 의하여 유아학교로 전환되는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중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각 교육법에 의한 유아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또는 준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삭제)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삭제)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0절의 제목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삭제)
제73조중 "원아, 학생"을 "학생"으로 한다.(삭제)
제7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유아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하의 유아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아학교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삭제)
제79조제2항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을 "교장·교감"으로 한다.(삭제)
제81조제7항·제84조제1항·제85조제1항·제126조·제143조·제146조·제148조 및 제169조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삭제)

제89조 중 "학생, 원아와"를 "학생과"로 한다.(삭제)

제147조 중 "유치원교육"을 "유아학교교육"으로 한다.(삭제)

별표 1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고, 동별표의 비고란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을 "교장, 교감"으로 한다.

별표2의 제목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을 "교장, 교감"으로 하고, 동별표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며, 동표의 유치원의 교장(원장)란 중 "원감"을 "교감"으로 한다.

별표 2의 자격란 중 "교감(원장)"을 "교장"으로,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을 "교장, 교감"으로 한다.

- ②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 3제1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삭제)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삭제)

- ④ 특수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조제1항 및 제8조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삭제)

- ⑤ 교육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을 각각 "교장,교감"으로 한다.(삭제)

Ⅲ 영유아보육법 개정

1.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내용

- ▶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의 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돼 직장여성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

· 9월 7일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인가기준이 지금까지의 상시 영유아 11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되었다.

·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수를 현행 30인이상에서 52인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해 종교단체에서의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 ▶ 종전에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자 양성을 위한 24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영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를 폐지하였다.

2. 용자보육시설 명의변경 및 유희공간 활용 개정 지침 안내

용자보육시설에 대한 명의변경 및 유희공간 활용에 따른 지침

민간 용자보육시설이 경제난, 원리금 상환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용자보육시설에 대한 명의변경 및 유희공간 활용에 따른 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보육시설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용자보육시설의 명의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며 명의 변경시 양수, 양도, 관계은행 등 3차 합의후 명의를 변경하고, 인수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명의변경 사실을 신고함(시·도 지방보육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 명의변경 사항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월별)

1) 명의변경시 가능한

- 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설장 유자격자
- 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자격자로서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한 자
- 다) 유자격 시설장 채용이 가능한 자
- 라) 기타의 순위로 전문성을 확보한 자

2)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 절차

- 가) 인수자는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채무(원리금 및 연체이자 포함)를 부담
- 나) 채권자(금융기관),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추진

나. 시설면적의 과다신축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보육시설 공간이 장기간 유희공간으로 방치되는 시설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역의 보육수요, 보육환경 저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용자금으로 신축된 전체면적의 1/4범위내에서 주택, 직원 기숙사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함

다. 시행일자 : '98. 8. 24부터 적용

3. 민간용자보육시설의 법인화 전환 지침 변경

민간용자보육시설의 법인화 전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95~'97)」의 추진으로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요건을 완화하고, 각 시·도에 민간 용자보육시설의 법인 전환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법인화 요건에 대해 각 시설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민간용자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자보육시설의 법인전환시 업무처리('97년 보육사업지침 211쪽)

현행	개선
1) 용자금 상환 후 법인전환	1) 삭제
2) 용자금이 법인출연기본재산의 50%미만인 시설(출연기본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2) 법인인가 관청리 법인전환시의 재산관리상황, 용자금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 조치 가) 용자금 및 담보물건의 규모가 법인의 기본재산의 관리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에 관한 공고

편집자 주 :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에 관한 공고가 났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1998-98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취지
보육정보센터 보육지도원 임명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
2. 주요골자
가. 시군구에서 설치한 보육정보센터를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보육지도원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임명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의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0월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육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전화 02-503-7578, 7579, 팩시밀리 02-504-6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1998-107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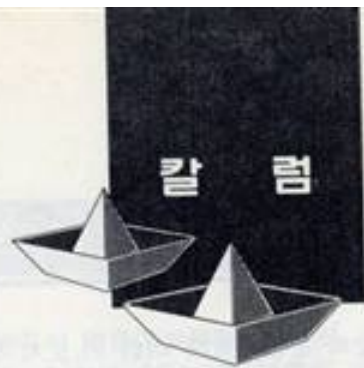
1. 개정취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세칙 승인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
2. 주요골자
가.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임명보고의무를 두고 있는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하위규정을 삭제함.
나.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수료증 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의무등의 규정을 삭제함.
라.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마.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세칙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함
바. 보육시설의 장이 종사자 임명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0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육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전화 02-503-7578, 7579, 팩시밀리 02-504-6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1998-97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취지
보육시설의 휴지 폐지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추어 관련법령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육료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조항에 맞추어 조정하고 변경신고 등 미비점을 보완함
나.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면서 휴지후 재개신고 등 누락된 부분을 보완함.
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징수하고자 할때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지역적 실정을 감안한 보육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0월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육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전화 02-503-7578, 7579, 팩시밀리 02-504-6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동기! 대량실업시대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정익연 · 본회 회장

IMF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말은 아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얼마쯤 계속될지 짧게는 3년이라는 사람들도 길게는 십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 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금방 이 현실이 끝나리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아주 소수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 정말 모두 어려운 시기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특히 고통을 당하는 건 아이들이겠지. IMF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도 특히 이런 결과를 오게 한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들은 고스란히 어른들이 벌여놓은 상황의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IMF이후 이혼가정이 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키우기를 포기한 가정이 늘어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용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증가한다는 신문, 방송매체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경제문제가 아이들을 부모와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놀이방이라고 불리우는 보육시설은 애초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보호, 교육하여 이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된 권리인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량 실업사태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직과 더불어 아이들도 다니던 보육시설을 그만두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실직은 부모들로 하여금 보육료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볼 수 없다. 부모중 한명이 혹은 모두가 실직을 당하였다고 가정하여 부모들과 안전하게 집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위하여 하루종일 다시 구직전선에 나서는 부모들을 보내고 하루종일 집에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현실은 후자쪽인 것 같다. 당장 보육료를 감당 못하여 아이들을 그만두게는 하였지만 먹고살기 위하여 새로이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다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원인에서였기는 하지만 바로 10여년전에는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밤에 아이들만 두고 문을 잠그고 일하러 간 사이 불이나 아이들이 질식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 당시는 안

심하고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지금은 반대로 시설이 있어도 실직으로 인해 보육료를 감당못하여 또다시 아이들을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직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또한 민간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들 중에 실직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물론 실직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혜택을 받게는 되겠지만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다시금 고민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특히 인간발달상 가장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동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더욱 그 문제는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실직가정의 자녀에게 보육료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의 전국적 실시가 매우 시급하며 또한 빈곤층에서 실직한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일 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실직가정 자녀를 위한 '일시보육사업' 등이 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벌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기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의 가정에게는 적절한 보호시설이 연결되어야 하고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아이를 방치하고 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직가정에게는 한시적이나마 무료로 급식과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래적으로 누구나 지니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아동의 '권리'적 차원에서 그러하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동기를 생각한다면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방치되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시급히 고민되어져야 한다.

“이 글은 9월 22일자 경향신문 공동체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기 획

TV의 얼굴알기

이정주 · 서울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

핵 가족화는 엄마의 역할을 가중시키고, 반면에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 허기를 느끼기 쉬운 환경을 가져왔다. 마음놓고 놀 수 없는 주거환경, 형제가 없는 외톨이, 방과후 학원가를 한바퀴 휘 돌아야 하는 교육환경, '영상세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그들에게 TV는 무료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요, 엄마의 잔소리로부터의 도피처요, 놀이친구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부족한 것들을 TV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채우고자 한다. 그 가상의 세계는 점점 현실세계와 공존함과 동시에 지배하려고까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TV는 필요악이다.

TV는 여러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도 상반되게 이해될 수 있다.

TV의 정기능은 생각보다 무척 많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정기능을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세대라면 TV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TV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꼳꼳이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긴장감을 풀고 편히 기대고 앉아서 TV를 본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바로 TV를 보는 것이다. TV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락매체이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가하면 우리들은 TV를 통해 이 사회의 가치와 규범, 관습, 공동체의식 등을 습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화되어 간다.

TV는 아이들에게 식습관부터 인사하는 법, 길 건너는 법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TV는 교육방송을 통한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실험이나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쉽게, 그림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능도 있다.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지식적인 것은 학교 이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TV화면을 통해 가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접경험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물론 지구를 떠나 우주세계까지 여행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 뱃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만일 정보가 집결되는 TV가 없었다면 정보화 시대는 결코 꿈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밖에 연극, 뮤지컬, 음악회, 영화 등 비싼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각종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다. 프랑스 월드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환상적인 입장식 퍼레이드를 볼 수 있다. 그밖에 TV는 대리만족기능도 있고 계층상승의 욕구를 주기도 한다. 전화 ARS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재의연금을 보내고 동포애를 확인한다. 노사간의 분쟁도 TV앞에서 격렬하게 토론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을 뒤바꾸면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TV의 얼굴이 된다.



기 획

TV를 켜놓고 입은 벌리고 즐거워 웃고 있지만 가족들과 대화는 할 수 없다. 들로 산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는 대신 몸과 눈을 고정시킨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구들과 치고 받고 몸으로 놀거나 놀이감을 직접 만들어 보는 즐거움 대신 백화점에 가서 다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사회를 배우지만 사람 사귀는 방법,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이론에 그칠 뿐 점점 이기주의가 확산된다. 국제화 바람은 필요 이상의 용량의 컴퓨터를 집집마다 들여놓게 했고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축냈다. IMF라고 하지만 TV는 흥청망청 여전하고 계층간의 위화감도 커진다. 일류대를 순위대로 늘어놓고 대학입시경쟁을 가열시킨다. 수재의연금은 한국통신, 방송사에게 이득을 주고 정부의 복구에산으로 남기니 실제 수재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은폐되고 분석은 없고 시사콜로한 현상 나열만 하는 뉴스는 사람들 속을 뒤집는다. 자기 얘기만 하는 토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잠시 TV의 역기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이가 밤새도록 비디오를 보고도 모자라 보육시설에 올 때마다 비디오를 끼고 울만큼 TV에 중독이 되었다. 친구와 노는 시간보다 TV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 TV를 보느라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언어장애가 생겼다. 이쯤 되면 TV라는 비현실 세계가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TV를 보는 것은 물론 TV를 끄는 것도 자신의 의지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TV를 끄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런가하면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상품들은 항상 갖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빈곤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친구들을 사귄때에도 장난감이 많은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캐릭터 산업이 아이들의 유행을 주도하고 아이들 사이에선 소비가 미덕처럼 여겨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엄마는 좋은 엄마요, 안 사주면 나쁜 엄마이다. 또한 모두다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의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고 운동회 아이들의 부러움을 산다. 임기응변에 능한 아이들은 부분적으로 머리가 크고 엄마들은 자기아이가 제일 똑똑한 줄 안다. 조기교육의 불을 타고 해외여행으로 줄을 이었었다. 그리고 영상매체에 너무 길들여지면서 활자매체에는 익숙하지 않아 아이들이 책읽기, 글쓰기 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운동할 시간은 TV보는 시간으로 대체되고 아이들은 점점 허약해져간다. 또한 영웅, 초능력, 공주, 왕자, 이미지 광고 일색인 가상의 세계는 아이들을 현실과 유리된 신비주의의 신봉자로 만든다. 그런가하면 수많은 진실이 TV속에 감추어져 있거나 쓰레기로 치워져 버린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왜곡된 여성상,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미모가 빼어나야 대접받는 사회등 기성세대의 정형화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선정성, 폭력성은 점점 길들여지고 오히려 둔감해 더욱 더 자극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기도 하며 때로는 모방할까 염려스럽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TV의 야누스적인 얼굴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두 얼굴을 취하는 TV를 보면서 두가지를 동시에 읽는 연습과 TV조절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TV의 상업적인 속성이다. TV의 역기능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TV는 기본적으로 오락과 교육, 즉 재미와 유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정해진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취하기가 쉽지 않다.



지나치게 재미를 취하다보면 점점 자극적인 것으로 가게 되고 유익만을 취하자면 점점 따분해지기 일쑤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V는 온갖 유익함과 '시청자가 원하니까'로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상업논리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V는 시청률 경쟁에 예민하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93년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에 종선을 들고 MBC방송국 앞에 자리 깔고 앉았다. 매우 인상적인 시위였다. 당시 볼개편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뽀뽀'가 평일 방송을 폐지했었다.

이유는 보다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성인 프로그램을 비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도 모르는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며 울기까지 하였다. 물론 지금도 별반 나아진 기미는 전혀 없다. 항상 고무줄처럼 늘었다 축소했다 권리대로 움직이는 시간대가 곧 어린이편성대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항상 희생 양이 되어왔다. IMF를 맞아 방송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없앤 것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95년 모처럼 만들어진<어린이 프로그램 자문위원회>였다.

현재 방송중인 어린이 프로그램 20편 가운데 16편이 만화이다. 그리고 그 중 자그마치 11편, 즉 68%가 일본만화이다. 장르의 편중화는 물론 일본만화밖에 볼 수 없는 어린이 시간대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이 비교적 어린이 시간대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TV용 만화는 상업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성인물에 끼워 넣으로 나오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엔 팬시용품 회사에서 미리 상품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때리며 들여오는 것들도 있다하니 방송사야말로 일석이조일 수밖에.

일본 프로그램 중<고도모(어린이)뉴스>라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아이들이 진행을 하면서 주요 뉴스를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리포트,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일주일간의 뉴스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이유는 한가지, 어린이 프로그램에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다. '배끼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배길 것이지' 하는 생각조차 무의미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에 대해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는 매우 차이가 크다. 방송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하다. 그렇다고 자신은 방송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자만도 금물이다. 습관적으로 TV를 켜두는 것은 결코 아이들이 정서발달에 바람직하지 않다. 조화로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비판의식을 희석시킨다. 아이들은 TV의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들만이 공유하는 TV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유행이 있고 그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다.

TV에서 본 것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TV가 구심점이 되어간다. TV의 정기능은 물론 역기능까지 아이들은 서로에게 전염시키며 그들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파편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영상세대에게 TV바로 알기, 바로 읽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TV보기를 조절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TV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과학활동

전경숙 · 수원, 평동어린이집 교사

유아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지만, 막상 실제 활동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짤때는 어떤식으로 유아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유아들에게 과학은 이런 이런 원리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하고는 이론을 나열하면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리 없고,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때 처럼 정말 지루하고 괴로운 과학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자 봐라 과학은 마술이다 뽀' 하기에는 무언가 과학스럽지 않은 것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제시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아 과학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구나, 과학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내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갈까가 또 하나의 문제였다.

그냥 자 봐라 물이다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니 녹지? 설탕은 어디로 갔을까? 또 바라 물에 나무를 넣으니 뜨지? 또 못을 넣으니 가라앉지? 왜 그럴까?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야기 만들어서 들려주기로 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100%성공이었다. 실험한 이야기는 실험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과학교육 평가서

일시 : 1998.8.6(목) 10:30~11:30

장소 : 옥상 인조잔디(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내활동으로는 힘들다.)

참석아동 : 효진, 지연, 소영, 미선, 영진, 영훈, 다빈, 대한.(8명)

날씨 : 실험하는 동안은 맑음

주요활동내용

도입-이야기(문학적 접근?)

- 애들아,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목욕해요. 빨래해요. 머리도 감아요. 씨앗에 물 주어요. 마시기도 해요. 국도 끓여요.
- 그래 우리가 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말이야, 애들아, 사람들이 물을 너무 함부로 쓰고, 더러운 물을 너무 많이 버리니까 물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때 수돗물, 감물, 시냇물, 바닷물, 물들이

모였는데 모두 물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물이 없어졌
데.

애들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 못 씻어서 더러워져요, 감동이 되요, 거지 되요, 김밥도 못 만들어요, 영지네 씨앗
에 물도 못 줘요, 목이 말라 모두 죽어요, 빨래도 못해요, 나무에 물도 못 줘요
- 그래, 애들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물을 찾으니까 물들이 사람나라로 다
시 돌아오기로 했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물을 소중하게 아껴 쓰기로 했데.

애들아, 이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준비활동

물을 만지면서 느낌을 말해보자

- 차가워요, 시원해요, 따뜻한 물도 있어요,
아이들 모두 신나게 휘젓고 쳐서 뽀글기도 한다

주요활동

- 다양한 용기에 물 담아보기-모양이 없다, 흐른다(높은 곳→낮은 곳)
- 물감, 설탕 녹여보기-녹는 물질
- 모래, 흙밥-녹지 않는 물질
- 나무관, 못-돈다, 가라앉는다→배 접어 띄어보기
- 용기에 물 가득 채워서 물질 넣어 넘쳐나는 것 보기-부피개념
- 천, 모래, 종이, 솜 적시기-젖는다(무게도 재본다)
- 흐린 물 체에 걸러보기-깨끗한 물 만들기
- 벽에 물칠 해서 그려보기
- 배만들어서 띄어보기(시간이 없어서 못함)

평가

실험을 여러가지 해보았는데 도입부터 30분 동안은 집중을 잘하더니 앉아서 비슷한
실험을 반복하니까 지루해하고 작은 용기로 큰 용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물장난을 더
치고 싶어한다 안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서 놀라고 하니까 반은 가서 놀고 반(5세남아)
은 집중해서 물에 관한 실험에 관심을 보인다. 공간이 여의치 않아 배 접기는 못하고
남은 물을 떠서 벽에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모두 한 컵씩 들고가서 신나게 그리다가
손바닥 발바닥 찍기를 한다.

★실험 30분 이상은 금물-아이들이 지루해한다.

미무리

내려와서 손바닥 찍었던 자국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모두 없어졌다고 했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미선 - 다 집으로 갔어요.

효진 - 날라갔어요.

영진 - 햇님이 가져갔어요.

대한 - 모두 없어졌어요.

30분 이상할 때는 공간을 옮겨가며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다.

실험을 이고 나서...

실험을 하면 할 수록 머리 속에는 자꾸 더 많은 숙제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실험이라서 일상활동속에서 연계를 가지고 유아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이고 놀상 접하는 물
인데 물을 접할 때 우리가 과학시간에 했던 것을 생각할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그
시간은 즐거워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과학시간만 되면 마
음이 조금하다. 30분 안에 내가 아이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 10분씩이라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과학활동이 될까
하는 욕심이 생긴다. 물실험은 그래도 괜찮지만 식물에서 씨앗을 심고 물주고 싹틔우고
하는 것은 30분안에 하기에는 힘든 일 아닌가? 아이들이 오히려 응용해서 선생님 이것
해봐요 라고 했을 때 '다음에는 해보자'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막막함을 많
이 느낀다. 결국담당교사에게 일상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또 한가지는 무엇이든지 아이들은 직접 해보는 것이 좋는데 이야기 들려주고 보여주
고 나면 시간이 다되어서 실제활동이 축약되거나 급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다른
교사들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한다.(유아들은 30분이 지나니까 지루함
을 느낀다.)그래서 요즘고민은 어떻게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고민은 과학은 그냥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아들
에게 자연은 또는 우리주변사물을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있다고 한다. 물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공기, 불, 열이 없다면 등등 주변 물질이 없어
진 다음의 가정을 한다음 호기심을 유발하고 '아!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
한 것이로구나! 그러한 물질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유아과학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과학교사를 자처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
었다.

하지만 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것이 과학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되는데... 교사가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해야 하는데

올해 겪었던 실수들을 착실히 기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숙제를 풀어보
고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바깥놀이
풍경

사진으로 보는 우리아이들의 바깥놀이 풍경

강영신 · 경기, 신나는 어린이집 교사

여기 어린이집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경기 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신나는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기술을 양성 받는 동안 아이들을 6개월 가장 돌보는 곳입

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라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심심살려 매일 매일 바깥놀이와 놀이를 하죠. 아이들의 모습이 부럽지요? 놀러오실 분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림책 강좌를 마치고

지규남 · 천안보육교사 준비모임 대표

“2 시간의 짧은 강의였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그림책이란 이런거구나-라는 개념 하나는 확실히 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해주신 김량희선생님께 다시한번 박수를...”

짜짜짜...

행사장 뒷정리를 서둘러 끝내고 뒷풀이 자리로 가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울여름의 스타(?)로 떠오른 게릴라성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좌변개 우천등을 동반하고 말입니다.

“어머나! 어째, 우산도 없는데...”

출입문 안쪽으로 오종종하게 서있는 회원들의 양말이 순식간에 젖어들어가고 민망했던 것은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의 여행용가방에 든 슬라이드가 젖어들어가는 것. 편찮다고는 하시지만 제 마음까지 젖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 시작전에 비가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나마 지금 시작한 이비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우산도 없이 누가 이폭우를 뚫고 강의를 들으러 올까를...

비록 기대치에 못미치는 인원(?)이 참석했지만 그래도 행사를 무사히 치뤘다는 것에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천안 보육교사회 준비모임! 이것이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좋은그림책 강좌>라는 작은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의 뿌임을 밀어냈습니다. 사실, 1년여 동안의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97년 봄에 윤선영교수님과 함께하던 교사 연구모임이 끝나고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한달 두달...만나다보니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아닌데... 이대로는 아닌데...하면서 서로의 눈길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올 칠월에 서로가 심기일전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돼. 저지르자. 그래서 한국보육교사회의 박정애선생님을 만났고 회원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그림책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육교사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림책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 98.9.5(토). 오후3시-5시
- ◆ 장소 : 서부신협 부설어린이집
- ◆ 참가비 : 3,000원
- ◆ 감사 : 김랑희선생님(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 ◆ 문의 : 서부어린이집

종이접기로 예쁜 초대장을 만들고 8월 한달동안 일주일에 한번꼴로 만나면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생활정보지 문화알림코너에 광고도 내고 교재교구사에 포스터도 붙이고, 다과준비는 어떻게 하며 접수는 누가보고...초대장을 만들면서 회원들이 하는 말 "어썸, 너무 많이 올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하하..호호..히히..

다들 스스로 생각해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열심히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지요?

8월30일, 서부어린이집에서 5층 강당을 사용해도 된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서부 어린이집은 신협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법인체어린이집인데 5층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나 지역사회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5층 강당을 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은이 망극할수가.... 행사가 끝난뒤에 원장님을 비롯해 열굴도 모르는 이사님, 상무님에게까지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인고(?)를 감내하긴 했지만 마이크 시설에 안락한 의자에 제대로된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쁨에 회원들 모두 입이 찢어져 귀에 걸렸지요.

9월 3일 서부어린이집에 모여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행사장에 올라가 의자배치를 하고 다과테이블을 준비하고...서울에서 오시는 선생님은 당일 2시 40분까지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준비 끝!

9월 5일 한미모 한다고 접수마담을 본다면 두 선생님의 지각으로 대타 접수마담이 접수를 보기 시작해 드디어 강의 시작. 총 참석인원 21명+회원6명. 강의실이 너무 넓었던 탓(?)에 강의가 집중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중간에 마이크를 쓰셨지만 감사선생님의 빠른 말도 그림책과 함께 보고 듣고 하기가 숨이 찼고 2부에서는 그래도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을 들으니 감이 잡히긴 하는 데 아! 이놈의 슬라이드가 전원이 꺼지질 않나, 자동작동이 안되고 필름이 중간에 걸리니 손으로 밀어넣어야 하고... 할수없이 "저기요! 애가요! 서울에서 오느라고 피곤이 덜 풀렸나봐요."라는 예정에도 없던 중간엔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강의는 진행됐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 윤선영교수님께서 찾아주셔서 자리가 더욱 반짝 반짝 했어요.

아! 그런데 멍청한 진행자가(바로 이글을 쓰는)윤선영교수님은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소개를 했는데 중앙에서 오신 박정애선생님을 소개하는걸 깜박하고 마무리를 한거예요. 박정애선생님을 소개를 했어야 한국보육교사회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수 있는건데.... 아무리 첫경험(?)이라지만 이런 대 실수가....

박정애선생님! 첫경험이라 서툴렀던지 이해해주세요.

저녁 7시 30분 차표를 예매하셨다는 서울 선생님들을 역전까지 태워다 드리고 오신 윤선영교수님께 함께 찾집에서 평가회를 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윤선영교수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너무 고맙습니다. 자꾸 원수만 지면 안되니까 꼭 복수의 기회를 주세요)

공식적으로 준비된 모임이 아니라서 각 어린이집으로 초대장을 발송할 수도 없었고 회원들이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다보니 참석한 인원이 제한 될 수 밖에요. 더구나 신입회원 모집을 최대목표로 한 그림책 강좌를 끝내고 가진 9월 17일 모임에 신입회원이 딱 1명 나온겁니다. 그 새로로신 선생님 왈, "회원이 이게 다예요?"

어썸은 우리는 씨를 심었고 하나의 떡임을 밀어냈으니 그 다음 싱싱한 푸른잎을 피워내기 위해 천안보육교사회 창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은 11월 28일(토)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모두들 큰 성원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너(Jerome seymour Bru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내부에서 미는 힘은 그에 상응하는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안된다"고요.

우리네 아이들이 내부에서 미는 힘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춰 끌어당기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라고 감히 대답해 봅니다.

“자연과 친구 되는 신나는 창조학교”를 마치고

윤은주 · 서울 즐거운어린이집 교사

30년 가깝게 살면서 하늘을 그렇게도 원망했던 적은 없다. 그때가 바로 창조학교가 시작되던 때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상 우리는 산에서 주로 지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우루루 환광! 우루루 환광! 썩어! 썩어! 어쩔 그리도 억수 같이 내리는지 우리 교사는 새벽 6시부터 비 소리에 노심초사, 여기저기 전화해 가며 가슴을 얼마나 졸렸던지.... 그렇지만 아이들과 우리 모두 깨끗하게 6일간의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나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 지역의 아이들과 같이 나누며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을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해 들어갔다.

자연체험을 주제로 한 창조학교는 자연사 박물관, 짚 풀 박물관 견학과 불암산 나들이를 기본으로 동구미 짜기, 보릿대 인형 만들기, 수수깡으로 여러 물건 만들어 보기, 돌 곤충 만들기 등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창조학교를 끝낸 후 아이들 작품과 나들이 공책을 상계어머니학교에서 진행하는 소공원한마당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우리 아이들은 창조학교 기간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

짧은 기간동안 아이들의 변화 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옆 친구들과 어우러질 수 있었다는 것, 산에 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지렁이를 만져보고 흙을 만져 보았다는 작은 경험일 것이다. 자연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았다.

서먹함에 움막이던 아이가 친구들을 큰소리로 부르며 도망치던 장난 어린 몸짓을. 장마 비에 불어난 물에 뛰어 들어가 버둥거리는 해맑은 표정을. 징그럽던 지렁이가

귀여운 친구가 되어 그 친구를 찾기 위해 땅을 헤 짚던 그 아이의 재빠른 손놀림을. 보릿대로 만든 인형을 흥얼거리며 이리저리 도술을 부리며 날아다니는 꿈을 꾸던 그 아이의 눈빛을. 그리고 이를 모를 딱정벌레에 훌쩍 반해 손바닥에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던 살아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말이다. 이 경험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양분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자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몸을 부대끼며 나무와 곤충, 돌, 흙을 생명을 가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연은 다양한 모습의 자연을 마음속 깊이 간직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 자유를 통한 자연 체험은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조금씩 조금씩 되찾아 주고 있는 것이다.

점점 각박해지고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서 승리자가 되어야한다는 어른들의 요구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승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어른들의 논리가 말이다.

우리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며 맘껏 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육체적으로 튼튼해지고 지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과 도덕성을 배워 나가게 된다. 이 권리를 어른들의 권위로 침해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권리를 빼앗긴 채 나이를 먹고 마음의 질름발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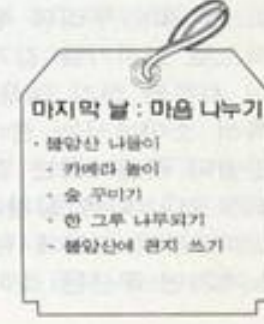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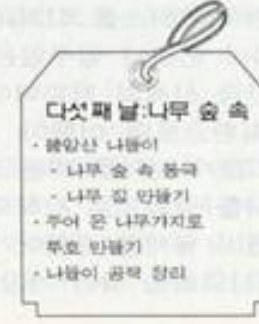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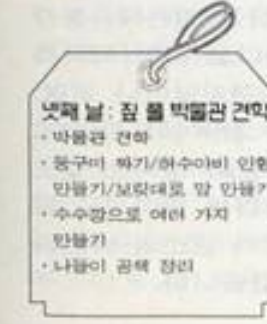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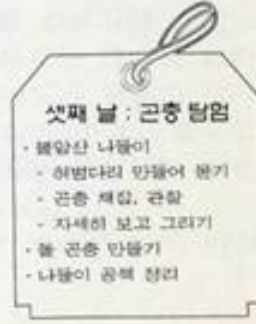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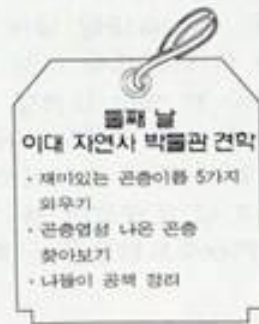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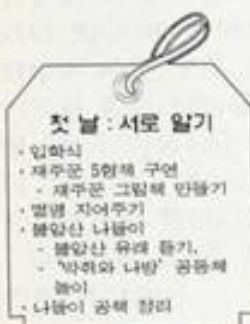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노력들이 실제 다른 지역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도되고 있고 많은 모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 사회단체인 상계어머니학교와 함께 한 “자연과 친구 되는 신나는 창조학교”도 아주 작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많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억수 같이 내린 비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섯째 날과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 취소되었다.





유, 소아에서의 감기에 대한 이야기

고시환 · 단국대학교 소아과학교실

기침에 콧물, 코 막힘, 열나고, 보채고, 잘 먹지도 않으며, 때로는 토하고 설사
에 피부 발진까지 나타나는 등 그 임상 증상들이 매우 다양하여 예측이
어렵고,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환이 감기라 볼니다. 아이가 병원을 찾았
을 때 “아이는 병원에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가 아픈가요?” 라는 물음에 대한 얼마
들의 대답은 대부분 아이의 상태나 증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감기 때문에 왔는데
요...”입니다. 이렇듯 감기라는 용어는 우리를 가까이에 있어서 그 진단에 그리 낯설
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데, 사실 이 감기라는 용어에 많은 소아과 의사들은 고민
도 하고, 난처함을 느끼게도 되기에 감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집어보고, 그 증상
들에 대한 대처나 예방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감기란?

이는 호흡기 감기 증후군의 총칭으로 코, 목구멍, 기관지등 호흡기 점막의 급성 염
증성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병명으로 부른다면 병변이 생긴 부위
에 따라 급성 비염, 급성 인두염, 급성후두염, 인두 결막염, 급성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 인플루엔자, 알레르기성 비염, 그밖의 바이러스
성 상기도 감염증 등을 말합니다. 이들 질환은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
픈 증세등 감기 증후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아 이들을 통틀어 ‘감기’라고
부르고, 인플루엔자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독감’이라 불린다. 바이러스는 주로 비
감이나 인후를 통해 신체로 침입하고 이러한 통로의 점막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됩니다. 우리의 신체방어기전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7-10일이 걸리는데, 통상
적으로 말하기를 감기는 치료를 하나 안하나 일주일은 앓고 넘어간다고 하여 적극적
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중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기관지염이나 폐렴,
특히 소아에서는 중이염과 같은 질환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감기! 이 말은 감기에 의해 다른 질환으로의 이행이 많다는 말도
되겠으나, 다른 질환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기도 합
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증상의 발현이 유사한 질환이 많으므로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
느껴지면 우선은 소아과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이번호부터 어린이와 건강 필진이 단국대학교 소아과학교실에서 소아내
분비를 담당하시는 고시환선생님으로 바뀝니다.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어린
이집,놀이방 정보(천리안 baby, 하이텔 bebo)】‘고시환소아과’방에서 건강상담을 하시
는 것이 계기가 되어 본회 편집부의 요청으로 1년간 원고를 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고시환선생님은 소아과 전문의로 주로 소아의 성장과 영양, 발달 및 유전성 질환을 진
료하고 계십니다. 회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기 증세는

서로 비슷하나 그 침범된 부위나 원인, 나이, 계절, 그 사람의 저항력 등에 따라 차
이가 많습니다.

1) 코감기 : 코가 나오고, 막힘

최근에는 코에 증상을 나타내는 코감기를 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아이들은 감기가 있으면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많고 콧구멍이 작기 때문에
쉽게 코가 막힐 수 있으며, 그 증상으로는 코의 점막이 부어서 분비가 심해지며 물
같은 코가 흐르거나 코가 막히고 그로 인해 숨을 쉴 때 쌉쌉거리며 힘들어하거나 심
할 경우에는 수면 장애나 수유 곤란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큰 증상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어른도 코가 막히면 매우 답답하고 집중이 어렵듯
이 아이에서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선은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겠지요. 우선 코를 뽑아 주면 우선 답답이야 코 막힘이 덜할지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코막힘을 계속 해결하게 되면 코의 점막을 자극하여 더 붓고, 충혈되며 건조해져서
코가 더 막힐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콧물 속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
는 기능을 하는 유익한 성분들도 있어서 이를 제거함으로 해서 2차적 감염의 위험성
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에 권장하기는 어려우며, 코를 물게 만들어서 코 밖으로 흘러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방안의 습도를
50-60%로 유지시키고, 수분 섭취를 늘리어 코에 물기를 늘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
고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며, 아이를 엎드려 재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나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이의 코막힘이 심하여 수유가 곤란하다면 가제수건에 따뜻한
물을 묻혀서 코에 온 습포를 해 주거나 아이의 코에 따뜻한 물을 한두어방울 떨어뜨
린 뒤 코 흡입기나 빨대를 이용하여 코를 제거하여 주는 방법도 있으나 너무 자주 강
하게 빨아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코에 뿌리는 점막 수축제나 물약 등은 일시적
인 효과는 보일 수 있으나 그 작용 시간이 짧고, 오히려 더 코가 막히는 수도 있으며
축농증의 발병율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르도
록 해야 합니다.

2) 가습기의 사용

가습기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코 막힘을 덜어 주고, 기침, 가래가 있을 때 공기가 건
조하게 되면 기관지도 건조하게 되어 가래의 배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를 자극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기에 방안의 습도를 올려주어서 기관지내의 점막을
부드럽게 해 주어 가래, 기침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게 되므로,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면 가슴기 하나정도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식과 같이 기관지가 예민할 경우에는 오히려 가슴기의 사용이 기관지를 더 자극하여 기침이 심해질 수도 있으므로 가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코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저귀를 널거나, 어항 등으로도 충분히 가슴기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다소 그 가슴 효과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슴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시는 오히려 곰팡이나 세균들을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게 되므로 안 쓰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가슴기의 사용 방법으로는 우선 첫째, 가슴기에 사용하는 물은 가능한 한 끓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을 끓여 살균 한뒤 식혀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둘째, 사용하는 물은 더운 수증기보다는 찬 수증기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슴기 및 주변에 대한 청소는 적어도 이틀에 한번은 해야 합니다. 넷째, 가슴기에서 나오는 김이 아이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며, 다섯째, 방안은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3) 열감기

많은 엄마들이 병원에 찾아 와서는 아이의 발열을 말하고는 하지만 아이의 체온을 말해주는 분은 그리 많지가 않다. 병원에 방문시 이미 해열제를 복용한 후인 경우도 많고, 하루중 열이 나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측정한 체온만을 기준으로 아이가 열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아이가 울고 보채서 어렵다고는 해도 내 아이에게 필요 없는 약을 하나라도 덜 먹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반듯이 열이 난다 느껴지면 열을 재 보도록 하십시오. 체온은 하루중 흔히 새벽에 제일 낮고, 늦은 오후가 제일 높으며, 주위 온도와 활동량, 연령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날수 있으나 대체로 36.7-37.5°C가 정상 체온입니다.

체온을 재는 방법은 주로 겨드랑이, 항문, 입 안에서 측정하는데, 갓난아기라면 항문이나 턱밑에서, 약간 자랐다면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재고, 6-7세 무렵에는 입안에 서 체온계를 혀 밑으로 밀어 넣어 잴 수 있는데, 이때 아이가 체온계를 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체온계가 깨져서 수은을 먹는다 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금속수은이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모두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아이에게 고열이 난다해서 질환의 경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열에 너무 민감한 두려움을 보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이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에게 총이 위험하다 해서 모두 없애 버린다면 더 큰 것을 잃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열이 난다해서 해열제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떨어뜨리려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일수록 열이 있어도 해열제를 쓰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우선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열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에게서의 해열제 사용은 반듯이 의사와의 상담후 복용하도록 하십시오. 열이 나는 아



이들에 대한 일반적 요법으로는 우선 첫째, 주위 환경을 낮춰줍니다. 옷이나 담요로 너무 싸주지 말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팔, 다리, 몸통등 가능한 몸 전체를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때 얼음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면 아이가 놀라고 혈관 수축으로 인해 더 체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자극이 없는 물로 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분공급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열로 인해 체내 수분이 소실되고, 잘 먹지 않으면서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어 탈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번에 많이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자주 충분한 수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넷째, 해열제의 사용입니다. 해열제를 사용할 때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먹이고 좌약 쓰고, 이것 저것 동시에 복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스피린의 사용은 소아에게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열성 경기를 한다면 경련 자체는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거의 없으므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무엇을 해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아이를 편안히 두고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보호자가 하실 일은 경기중 아이를 세게 잡아 경기를 멈추게 하려 하거나, 기움환등 약을 먹이려 하지 마시고, 입안의 내용물을 치워 기도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한 뒤 아이가 경기를 멈출 때까지 지켜보신 뒤 아이가 경기를 멈추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경기의 양상을 자세히 설명 하여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열성 경기는 10분을 넘기지 않으며, 길어도 15분내에는 멈춥니다.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감기의 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기침과 가래

최근 들어 기침과 가래를 주증상으로 소아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감기에 의하거나 건조한 환경에 의한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만약 개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개를 재워버린다면 도둑이 쉽게 들어오겠지요. 다른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기침은 호흡기가 우리에게 몸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약으로 이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기침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주위 환경을 한번 둘러보고 의심이 되는 것은 바꾸고, 청결과 환기에 보다 신경을 쓰십시오. 병원을 방문 전에는 아이의 기침 양상을 주의 깊게 보시고 의사에게 전해준다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기침을 주로 언제부터 시작했고, 하루중 주로 언제 많이 하는지, 계절적 변화는 어떠한지, 한번 시작하면 발작적으로 하는지, 가래 기침인지 마른 기침인지등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이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기침이 너무 심하다면 수분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가래에 의한 기도의 자극을 다소 줄여 줄 수 있고, 묽게 하여 줄 수 있어 다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아에서의 가래 소리는 많은 경우 실제로 가래에 의해 나는 소리라기 보다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서 울려나는 소리일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건강

5) 비염이란?

비염과 어린이의 감기는 대부분의 경우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이란 말 그대로 코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에 물을 따로 떨어뜨려 설명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급성 비염에 해당하는 말로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만성 비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성 비염은 대개 감기가 치료되면 같이 좋아집니다.

6) 중이염과 편도선염

어린이에서는 중이와 코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그 각도가 완만하며, 직경이 넓어서 코의 균이 중이로 넘어가는 것이 용이하여 중이염이 쉽게 걸리며, 소아의 편도는 활발한 면역활동을 하기에 그 크기도 크고 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편도선 염이 자주 걸리게 됩니다.

2. 아이들의 감기가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병원에도 단골이 있습니다. 한번 아파서 온 아이들은 대부분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병원을 들락거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원인이 있으리라 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호흡기 발달의 미숙에 의해서 일 경우입니다. 어린이마다 개개인의 발달 과정과 속도는 달라서, 호흡기 발달이 미숙할 경우 호흡기 질환의 이 환율은 높다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기관지는 그 직경이 작아서 비교적 적은 염증이나 가래 등이 생겨도 어른에 비해 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약으로 증상을 없애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직경 이상으로 기관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다해도 부작용의 위험이 높고, 약으로 염증이나 가래를 녹인다해도 다시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억지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올리려 한다면 오히려 약의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의 폐포 표면적은 어른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폐포는 몸속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몸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면적이 적다는 뜻은 가스교환능력이 약하다는 것으로 비교적 경한 질환의 상태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지속되며,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원인으로서는 어린이의 기관지에는 점액선이 풍부하여 염증이 생기면 어른에서 보다 비교적 더 많은 가래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또한 기관지가 가늘기 때문에 배출에도 어려움이 있어 증상이 오래가게 됩니다. 다섯째 원인으로서는 기관지에 붙은 근육이 적고, 근섬유가 약해서 호흡곤란시 쉬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호흡운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상의 원인을 볼 때 어린이들에게서의 반복되는 만성적 호흡기 질환에는 부분별한 약의 복용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전문의와의 상담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 예방

글로서만 쓴다면 위의 모든 질환의 상담 퍼센테이지를 예방가능하다 할 수 있겠으



어린이와
건강

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예방이란 의미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질환의 예방법이라면 청결과 충분한 휴식, 적당한 영양공급과 수분의 섭취, 최적의 주위 환경과 질환을 가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예방접종을 시키는 등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질환을 예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기에, 예방법을 쓴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얼마나 보호자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을 하나 드린다면, 너무 약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는 아이의 많은 수에서 과거력이나 현재력상에서 아이의 증상 이외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오히려 약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도만 더 높일 수 있음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소아의 기침이나 가래 소리, 코 막힘 등의 증상들은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어 나타나는 소견들이 아니라면 과잉된 투약이나 조바심보다는 환경적 조절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믿음으로 치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제 병원에 들렀는데 왜 아이가 차도가 없는가라는 조바심으로 아이들의 감기를 다루려 한다면 필요 이상의 투약과 처방을 아이에게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얼마나 보호자 분들이 감기의 증상에 대한 이해와 병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리 하겠습니다.

4. 약 먹이는 방법 몇가지

- 1) 우선 기본적으로 엄마가 지켜 주실 일은 아이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몇번은 억지로 먹이겠지만 약 효보다는 아이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고, 한번 감제로 먹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우선 특별히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설탕물이나 꿀을 타서 먹여보십시오. 주의점은 약을 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2) 시럽의 향을 싫어한다면 물이나 주스로 희석하여 먹이십시오.
- 3)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물에 섞어서 주십시오. 예로 아이스크림이나, 케익, 요플렛...
- 4) 한번에 억지로 먹이려 말고 10-20분내에 걸쳐서 조금씩 먹이십시오. 약을 먹고 토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 5) 약을 시럽으로 만들어서 한번 복용량만큼씩 얼리십시오.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면 약향이 다소 나더라도 먹기에 좋습니다.
- 6) 식사 전에 먹어도 되는 약이라면 가능한 한 식전 30분에 먹이는 것이 토하는 것을 줄이고, 아이가 받아먹기 용이하므로 좋습니다.
- 7) 유아에서는 엄마가 손을 깨끗이 한후 손가락 끝에 가루 약을 묻혀서 입안에 발라 주어 자연스레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며,
- 8) 우유병에 타서 먹이는 방법은 자칫 아이가 우유마저 거부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

감기라는 용어는 하나의 질환을 말하기보다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묶어서 말하는 증후군이라 할 수 있겠기에 그 증상으로 감기다 또는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이다라고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소의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이외의 질환이라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 진단에 있어서 병원마다 또는 같은 병원에서도 시간에 따라 진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질환마다 증상이 유사하고, 유.소아의 호흡기 질환들은 유동성이 많아서 편도선염으로 시작했다해도 곧 중이염으로 다시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아이들마다 개인차이가 심해서 병원 방문 하루만에 다른 증상으로 다시 찾는 경우도 흔하기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가래기침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맑은 가래 - 천식 탁한 가래 - 염증성 반응, 천식 악취 나는 화농성 가래 - 기관지 확장증
개짚는 소리와 같은 기침	후두 및 기관의 급성 감염 (크룹)
췌소리 기침	기관지염, 습관성 기침
발작성 기침	백일해, 이물 흡입
야간 기침	부비동염, 천식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한 기침	기관지 확장증, 만성 기관지염
수면시 소실되는 기침	습관성 기침, 경증의 과민성 기도 반응
가슴이 답답하고 쌉쌉 소리나는 기침	천식
운동 유발성 기침	천식

기침의 양상에 따른 특징적 질환에 대해 위에서 언급을 하였으나, 각 기침의 차이를 보호자 분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선부론 구별로 진단을 내려 약을 복용한다면 오히려 진단에 필요한 특징적인 증상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반듯이 병원을 방문하여 아이의 기침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하루중 주로 언제 심하고 기침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의사에게 설명하여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성 기침이나 반복되는 감기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할 때 주로 듣게 되는 감기 이외의 진단명이 몇가지 있겠으나, 대부분 그 증상과 치료 방향, 예후등은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얼마나 보호자 분들은 진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생각하며, 지금 당장의 증상보다는 계속이어지는 아이의 병력을 알고 있는 의사와의 상담이 중요하기에 아이를 보아준 병원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살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들을 수 있는 몇가지 질환에 대해 엄마와 보호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후두 및 기관의 급성 감염 (크룹)

성대와 성대 하부에 생긴 염증을 후두염, 또는 후두 기관염, 후두기와 기관지염이라고 하며 성대의 상부에 생긴 것을 후두개염이라고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그 증상이나 치료는 대부분 유사하기에 크룹이라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묶어서 진단 내리고 치료를 합니다. 증상은 어릴수록 더 심해서 어린 유.소아에게서 염증이 심할 시 기도를 막아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으로 주로 밤에 심해지는데 건강하던 아이가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개 짚는 듯이 'کمکم' 거리는 소리의 기침을 하고 목이 쉬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응급 조치로 찬 공기를 쏘이거나 분무기로 차가운 증기를 쐬어 주십시오. 이러한 증상의 환아들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놀라서 병원으로 업고 오면 오는 사이에 찬 밤 공기에 노출되어 그 증상이 많이 소실되어 지고는 하는데, 하지만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을 반듯이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드물기는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또한 집에 가지고 있는 상비용 감기약을 먹이는 것은 오히려 감기약중에 들어 있는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 아이의 증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피하도록 하십시오.

2) 급성 기관지염

쉽게 말한다면 감기가 오래돼서 생기는 병의 대표적인 것이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대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즉 감기가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염이 있고 3-4일후 잦은 기침이 시작돼서 호흡시 쌉쌉거리는 휘파람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가슴의 통증과 호흡이 빨라져서 아이들이 지치거나 탈수 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기침 뒤에 구토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의 양상은 처음에는 다소 마른 기침이었다가 가래 기침으로 바뀌고 5-10일 내에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 기간중 발열의 정도는 아이마다 차이가 많아서 열이 없을 수도 있고, 심한 고열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급성 세기관지염

만성 기침이나 반복되는 감기를 보일시 소아과에서 흔히 듣게 되는 진단명중에 하나가 세기관지염 또는 모세 기관지염이라는 진단명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관지 중에서도 끝에 위치하는 아주 작은 기도가 염증으로 인해 막힘으로 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생후 2세 이전의 유아, 특히 생후 6개월 내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하며, 고열과 콧물, 기침등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호흡곤란증상이 심해지고 호흡이 빨라져 수유 곤란을 보일 수도 있으며, 코를 벌렁거리고, 가슴이 숨을 쉴 때 따라 들락거리는 함몰을 보일 수도 있으며, 대개 2-3일 심하게 앓다가 회복을 보이게 되는데, 주로 유아들에게 오는 질환이므로 증상만으로는 진단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으니 반듯이 소아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4) 기관지 천식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에 최근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마다 그 온도나, 음식, 계절별로 유발 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라 증상의 경중도 다르기에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5) 폐렴

신생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에서의 폐렴이라면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집에서의 진단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병원에서의 상담을 권합니다.

6) 호흡 기도 내의 이물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장난감으로 여겨질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입으로 가져가 지게 되기에 이 물질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성도 높은 시기입니다. 기도로 넘어가서 병원을 찾게 되는 이물의 종류는 주로 땅콩이 가장 많으며, 그 증상은 이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를 완전히 막아 질식상태에 취할 수 있는 응급 처치 법은 아이의 크기 정도에 따라 다른데 나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 1세 이하의 영아에서는

- 가) 아이를 어른의 전박에 올려놓고 머리와 목을 고정시킨 뒤 손바닥으로 양측 견갑골사이(양날개사이)를 때칩니다.
- 나) 위의 방법으로 이 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딱딱한 바닥에 아이를 눕히고 흉골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압박합니다.
- 다) 이래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위의 두 방법과 구강대 구강 또는 구강대 비강법으로 인공 호흡을 번갈아 가며 시행합니다.

◆ 1세 이상의 유아에서는

- 가) 환아를 똑바로 눕히고 어른은 환자의 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쪽 손바닥은 배꼽과 흉곽사이의 한가운데에 놓고, 다른 한손은 그 손위에 놓은 다음, 복부를 쳐올리듯이 압박합니다.
- 나) 이물제거가 될 때까지 또는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위의 방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7) 부비동염 (축농증)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기침을 보이며, 밤에 주로 심하고 코를 고는 아이들에게서 의심해 보아야할 질환으로는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 부르는 부비동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비동이란 머리를 구성하는 뼈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 주머니를 말하는데 특



히 그중 코 양옆 밑으로 위치한 상악동에 염증이 잘생기지만 2세 이하에서는 그 발병률이 높지 않지만(약 7%) 3-5세 사이에서 반복되는 기침을 가진 아이중 약 50%에서 부비동으로 진단되었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부비동염도 함께 그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치료는 약물 치료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안내

1. 천리안 go baby, 하이텔 go bebo로 들어가서, 게시판 31번 '고시환 소아과'를 선택합니다.
2. 어린이건강등에 관한 궁금사항을 적어 올립니다.
3. 며칠내에 고시환선생님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7일간의 중국 여행(1)

서정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 운영자

유 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지난 7월 24일부터 '제 17차 韓·中·日 에스페란토 청년세미나' 참석과 중국 유치원 방문 목적으로 일주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에스페란토어는 나라와 민족, 이념을 초월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계공용어이며 이를 통한 세계평화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은 매년 세 나라를 돌면서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협력과 우의를 다지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올해 세미나 개최지가 중국이었다. 특히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에스페란토어를 널리 보급하고 있어, 북경방송(라디오)에도 정기적인 에스페란토 방송이 나올 정도이다. (듣자하니, 모택동 주석이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전달을 위해 에스페란토어를 보급토록하고 실제 그 자신도 이를 썼다 한다.)

4년 전 짧기만 했던 첫 중국여행에서 받았던 그 진한 느낌과 감동은 내게 있어서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평소 관심조차 없었던 홍콩영화를 보게 하였으며 주위에서 들려오는 단신부터 다큐멘터리까지 중

국을 다룬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유심히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관심사인 '아동양육'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없어서 아쉬워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방문은 좀더 진지한 관심과 설렘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간 궁금해왔던 '중국의 어린이집은 어떤가' 하는 소박한 의문을 풀 수 있길 바랐다. IMF 탓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라 하는 맘에 주최측의 경비 지원도 한 몫 거들어 우리 세 식구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 70년대의 향수, 21세기 미래가 있는 북경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작성한 98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의 질은 전세계 1백 74개국 중 30위. 중국은 1백 6위이다. 각국의 평균수명, 문맹률, 1인당 국내 총 생산등을 토대로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측정(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하여 삶의 질을 진단한 결과이다.

삶의 질은 이렇게 낮을진대, 중국인들의 자존심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이다. 실제로 내가 만난 중국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서두르는게 없이 느긋해 보였으며, 자신의 나라가 못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신



을 낮추거나 급진거리거나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에서 줄부근성을 부려볼까 했던 한국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낭패를 보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IMF이후 도리어 한국을 동경하고 걱정하면서 되려 동정을 보내는 중국인도 있어서, 요즘 유학생들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중국은 워낙 넓고 인구가 많아, 그 평균을 내자면 어렵겠지만, 중국은 외환보유고 세계1위인 나라라고 한다. 특히 북경만을 놓고 보면, 서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추고 노는 것(교과목에도 들어있다는 사교춤은 우리에게서 어색하게 보였지만, 여기서는 남녀노소 보편적으로 사교춤을 능숙하게 잘 추고 즐겨하며 거의 예술가 수준이다. 탁구, 배드민턴 등 운동도 생활화되어 있다.) 먹고(아침, 점심식사도 대충 때우는 우리와는 사뭇 달라보이는 것은, 대부분 밖에서 아침과 점심을 사서 먹기에 조리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 쉬고(숲이나 공원 등이 많았으며, 산보하고 구경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밝고 활력있게 생활하고 있었다.(어디를 가나 시장에는 농수산물로 그득하고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북경은 수도이니 만큼 4년 전의 그 모습과 또 다르게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었다. 고급의 고층아파트와 오피스빌딩, 백화점과 대형 음식점, 호텔... 등등 특히 그들이 짓는 음식점, 호텔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인 듯 웅장한 중국의 궁궐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일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공산권 국가 중국의 현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큰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서면, 바로 서민들의 모습이, 우리의 70년대 모습을 연상케 한다. 포장안된 도로에서 풀을 나는 흙먼지, 낡고 허름한 음식점과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음식과 상품들, 새까맣게 그을리고 순박해 보이는 아이들, 짧은 치마에 재봉선이 있는 누런 스타킹을 신은 여자들의 약간은 촌스러운 옷차림.. 남자들은 웃옷을 벗고 종일을 지낸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민망해 했지만, 더위를 피해 밤새 밖에 나와 놀다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곧 익숙해졌다.

도로 위에 한 줄로 길게 자리잡은 이발사들. 의자와 수동 머리깎기 기계, 작은 천 조각의 앞 가리개, 그리고 작은 손거울이 전부인 이들은 근사하게 차려놓은 이발소와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내놓고 이발을 한다. 현대식의 슈퍼마켓이 있는가하면, 말이 끄는 마차, 수레 가득히 과일, 야채

가 흙 묻은 그대로 재래식 저울에 매달려 팔리고 있다(중국은 우리와 달리 무게를 달아 계산하기에 같은 개수라도 무게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한 개 더 달라거나 하는 등 시비가 없이 거래가 간단하다.) 그야말로 어릴 적 내가 살고 보았던 동네에 온 듯한 푸근함과 향수를 느끼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00년을 향한 빠른 발걸음이 자스민 차와 콜라에 함께 있는 곳이다.





-중국인 56개(!)민족으로 이뤄진 나라

중국은 여러모로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어, 그렇기에 잘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면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기대했던 느낌과는 정말로 다른 아니 더 진한 모습과 느낌을 주는 나라이다. 커도 너무 크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을 준다.

특히, 민족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색다른 것을 보여준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로서는 전혀 짐작도 못할 것이다. 말도 다르고(그래서 광둥어와 북경어를 따로 배우지 않는가), 관습도, 얼굴 생김도 다르다. 내가 한국말로 몇 마디 건네면(물론 중국 말을 못하기도 하고) 그들은(외국인이라 생각치 않고) 중국의 어떤 다른 소수민족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못 알아들을 타 지방 말이겠거니 한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던 무슬림빵은(그 지방의 대표적 종교가 무슬림임) 일테면, 위의 건더기들은 모두 빼버리고 남은 피자밀반의 빵 같은 것으로 아주 커서 이 빵을 구워 파는 이의 얼굴보다 더 컸다. 이것을 양고기 (꼬치에 끼워 굽거나 볶은)와 싸서 먹는게 이들의 주식인데, 이들은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서안인들

로, 생김이 열악없는 북유럽인들이었다. 눈도 파랗고 얼굴고 하얗고, 코도 오뎅한..그들이 중국인이란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중국인의 이미지와 맞추느라 한참 고생했다. 그들 또한 북경어를 따로 배워야만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그냥 자신의 민족어를 사용하며 지낸다.

요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정말 훌륭한 식사를 했는데, 대부분 중국식 소스를 넣어 기름에 볶고, 지지고, 찐 것들이다.(몇 억의 중국인이 매끼마다 모든 음식을 불로 조리하니 중국이 안 덥겠냐 하던 유학생의 말이 황당하면서도 수긍이 가기도..)

우리로 말하자면 반찬인 일명 '요리'가 한 상 깔리고, 원판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개인접시에 덜어먹는데, 대부분 끝 무렵에 밥이나 빵, 만두, 국 등이 나왔다. 큰 상 가득히 음식을 쌓아 놓고 정말로 끈기 있게 조금씩 조금씩 먹는 여유 자작한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음식종류와 조리방법이 다양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을 매 식사때마다 느꼈다. 특히, 그래서 중국인들이 머리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에 땅콩 등이 많이 쓰였고, 각종 씨앗이나 견과류를 늘 즐겨 먹고 있다. 군것질감이 도시에서는 풍족하나 그것도 중국인들에게는 비싼 편으로 시 외곽이나 농촌에서는 그리고 먼길을 떠날 때는 해바라기 씨나 수박 씨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까먹는다. 그래서 일반 기차나 버스를 타보면 바닥이 온통 그 껍질로 하얗게 덮여 있다. 또한 맥도날드, KFC, 피자헛 등 외국 유명 외식 체인점도 많고.. 그 안에 가득한 중국인들을 보면, 정말로 중국은 먹는걸 즐겨하

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나라인 듯하다. 우리는 차가운 물을 쉽게 만나지 못했다.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뜨거운 자스민 차가 그들에게는 '물'이었다. 기름진 음식 탓에 그렇다던데.. 그러나 현대화 바람을 타고 그 자리를 물라가 대신하는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물라 또한 식사시 없어서는 안 될 메뉴로 이미 중국 문화에 깊숙하게 자리잡았다.

- 중국지도로 세계와 교육은?

첫 번째로 방문한 000유치원은 아주 '일반적, 평균적인' 유치원을 소개해달라던 내 요청에 따른 곳이다. 북경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은 아동 120명에 교사 16명의 규모로, 일일유치원과 기숙 탁아소(아동은 5일간 계속 있다가 주말에만 부모에게 돌아간다)를 함께 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유치원은 문 입구에 눈에 익은 큰 세계지도가 걸려놓았고, 나는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 이들은 이렇게 세계와 교육을 하는구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중국지도였다. 우리나라를 표시하자니 자주 보게 된 아시아지도,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아왔기에 당연히 세계지도를 생각하면, 아시아가 먼저 떠오르고...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던 세계지도라 여겨지는 아시아 대륙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중국이란다. 그렇게 큰 나라구나.. 그래서 이들은 큰 나라 사람, 세계의 중심국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단다.

000유치원은 2층의 붉은 색 벽돌 건물로 오래된 듯 낡고 어두워, 설비, 내 외장 등은 구식이었지만, 변변치 않아도 운동장이 있고, 넓직한 시설의 규모는 부러움을 갖기에 충분했다.

한 평 정도의 원장실은 작은 냉장고, 작

업대 겸 책상, 책장, 의자 두 개가 전부인 단출한 살림으로, 현대식의 잘 갖춰진, 또 다른 △△△유치원(다음에 소개할)과 대조를 이뤘다. 원장, 부원장 선생님과 서로에 대한 인사를 나눈 후 각 반을 돌아보았다. 아동, 교사 모두 신을 신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교구나 교육활동 재료들이 풍부해 보지 않았다. 또한 실내 채광도 어둡고, 매우 더웠지만, 각 반에 선풍기 한 대 정도가 있었으며, 실내의 철은 낡고 창틀은 철이 벗겨지거나 오래 방치한 듯 보였다.

우선 1세-2세아들의 반(사진)에 안내되었다. 아동은 총 19명, 교사는 3명, 아이들 수에 비해 공간은 꽤 넓게 느껴졌다. 바닥은 시멘트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은 채여서, 아이들은 신발을 신은 채 하루종일 생활한다. 좌식 생활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린 아동들이 종일 갑갑하겠단 생각이 들지만, 침대생활을 하는 그들은 집에서 대부분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에 그렇지만도 않다고 한다.

대신 벽을 둘러 낮은 의자가 있어, 수시로 그곳에 앉아서 쉴 수 있게 하였으며, 교실 한가운데에 나무로 된 오래된 의자와 책상이 있어, 한 무리의 아이들은 그곳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린이와
건강

3세 이상 반도 아동 19명에 교사 3명, 자유놀이시간이었는데, 구슬꿰기, 공작, 적목 등 미술활동을 하고 있었다. 책상은 4개에 각각 5명이 모여 앉아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이 반에는 미술활동한 결과물을 벽에 전시하고, 금붕어를 기르고 있었으나, 앞 교실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을 위한 용구나 재료들이 부족해 보였다. 4-5세반은 20명이 플라스틱 블록을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유놀이 시간인 듯 책상에 모여 앉아 제각기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반은 16명이다. 체조실이 붙어 있는 교실이다. 체조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으며 유일하게 마루가 깔려 있어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커다란 블록과 공을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각 반 옆에는 침대방(이 방은 아이 침대 20개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으며 낮잠과 휴식을 위한 방이다)과 세면실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낮은 변기, 수도꼭지가 일렬로 달려 있으며 각각의 수건, 칫솔 등이 걸려있다. 또한 그 방의 청소를 위한 도구들이 있었다. 이 세면실은 타일없이 시멘트로만 발라져 있다.) 이 유치원의 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7:00~ 등원
8:00 자유놀이 (체조, 운동)
8:30 아침식사
9:30 자유놀이(산보, 운동장에서 놀이)
10:30 여름에는 TV, VTR시청/ 그외 계절에는 오전 수업
11:30 밥먹기 위한 준비, 점심
12:30 낮잠
2:30 오후간식
3:00 산보, 수업, 놀이
4:00 저녁식사
4:30~ 퇴원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점심을 포함한 세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오후 4시 반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의 직장에서는 4시반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가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대부분 5시면 일이 끝나기에 약 30-40분 정도 일찍 직장을 나서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담당 선생님(부원장)과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였다.

Q. 교육활동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A. 중앙정부에서 교육활동 지침서가 나온다. 그에 따라 교육한다. 같은 연령의 경우에는 모두 같은 수업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Q. 교육활동을 위한 재료나 교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A. 정부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리스트가 나오면 그에 준해서 마련해야 한다. 재정이 적립되는 대로 교구나 교재를 구비해야 한다.

Q. 입소대상연령은?

A. 3세 이상의 아동은 유치원에 다닌다. 3세미만의 아동은 유아원에 다닌다. 6개월부터 다닐수 있지만, 대부분 1년 6개월 이상 되어야 시설에서 받는다.

Q. 보육료는 어떻게 지불하나.

A. 이 유치원이 속한 '외국 출판물협회 소속 법인'에서 지원받는다. 그래서 보통 1달에 250위엔(元, 중국화폐/ 현재 1위엔당 170원 정도로 약 45,000원)을 낸다. (월급은 대략 아빠가 800 - 1천위엔(136,000원 - 170,000원 정도) 번다. 엄마의 월급도 그 정도 수준/ 농촌은 약 절반이하 수준)

Q.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도 드는가?

A.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부모가 개인적



어린이와
건강

으로 든다. 안전사고가 나서 유치원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시설은 부모가 보험을 들어야 아이들을 입소시킨다.

Q. 정부의 지도, 감독이 있는가?

A. 정기적으로 보건소와 교육부에서 감독을 나와 원의 상태를 점검한다.

Q. 교사는 어떤 교육을 받는가?

A. 단과대학 수준의 별도 교사 양성학교에서 3-4년 공부한 후 교사가 된다.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교사가 최대한 맡을 수 있는 범위는 30명까지이다.

Q. 공립이 대다수일텐데.. 사립도 있는가?

A. 사립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수입의 증대와 사교육의 관심이 증가한 탓으로, 현재 약 25%가 사립이다.(여기서 말하는 사립이란 개인을

포함해서, 국영회사 등도 포함됨) 이들 시설은 매우 비싸서, 한달 1천위엔을 내야 하며, 그렇기에 부유층에서 이들 시설을 이용한다.(흥미로운 것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립도 있으나 많은 수가 기관이나 회사의 부설로 있다가 지원이 끊길 경우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독립을 한다.)

Q. 현재 교사들이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협회에서 좀 더 나은 숙소 즉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줬으면 한다.

(중국은 국가에서 외사를 운영하기에 취직하거나 결혼하면 집을 주는게 보통이나, 개방화에 따라 많은 기관이나 회사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곳도 국영 기관에 속한다.)





영아·한살바기를 위한 교육활동

조선경·인현, 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

‘영아 보육을 위한 좋은 책 좀 없을까?’이 고민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줄 만한 책이 있다. 바로 영아를 위한 교육활동 시리즈이다. 이 책은 미국의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아동발달센터에서 만든 “Addison-Wesley Active Learning for Infant”를 前지탁연의 교육연구부원 몇 명이 번역한 것이다. 원래 이 교육활동 시리즈는 0세, 1세, 2세, 3-5세를 대상으로 하여 네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0세와 1세 두권을 먼저 번역하였다. 출생에서 돌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를 위한 교육활동”과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살바기를 위한 교육활동”이 그것이다.

책의 각 권은 다섯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에는 영아를 위한 교육활동의 계획을 도울수 있는 단원과 네가지 활동영역을 담고 있다. 제1장은 <영아를 위한 계획>으로 이 부분은 양질의 보육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일과를 짜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활동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활동에 앞서 그 연령의 영아들의 발달 수준을 토대로 교사들이나 성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세심하게 가르쳐준다. 작은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함께하기

-아기가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기

-문제에 대처하기 :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낮잠, 기저귀갈기 등), “안녕”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물고 씻우기, 짜증, 독립성, 나누기 및 고대하기, 조속임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도움말을 주고 있다. 제2장에서 5장까지는 실제활동으로서 <말하기 듣기활동> <신체활동> <창의적 활동> <주변세계탐색활동>으로 나뉘어진다.

제2장의 <말하기 듣기 활동>은 영아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예들이 나와있다. 책이나 그림, 손 인형을 사용하면서 하는 놀이에 대한 설명도 있다.

제3장의 <신체활동>편에서는 다리 팔 등과 같은 대근육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들어있다. 또 아기들이 잡고, 안고,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손과 손가락 같은 소근육발달을 촉진하는 아이디어들도 있다.

제4장의 <창의적 활동>에는 미술, 블록, 극놀이, 음악활동 등이 속한다. 이 활동들은 영아들의 감각과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미술활동을 즐기면서 여러 기술이 발달되도록 돕는다.

제5장의 <주변세계 탐색활동>에서는 자연, 감각, 크기, 모양, 색에 대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아기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세계를 즐기며 배운다.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매력은 여러 가지지만 우선 월령별로 다양하고도 쉬운 활동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활동이 예쁜 표 하나에 담겨있는데 표 왼쪽에는 아기 그림이 있어 활동하기에 적절한 아기의 월령을 말해주고, 아래에는 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기발달목표가 나온다. 표의 오른쪽에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아기들에게 해줄 말이 나오고 그 아래에는 활동을 할 장소, 활동에 걸리는 시간, 적당한 참여인원을 표시해주고 있다.

또 다른 매력은 영아발달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양질의 보육을 위한 점검사항들을 세세하게 소개해주는 데 있다. 제2장부터 5장까지 각 장에는 실제활동에 앞서 각 영역의 필요성, 필요한 자료, 활동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더 좋다.

활동할 때 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책과 그림>에서 점검할 사항은

- ◆ 다양한 그림과 모빌, 그리고 단단한 책이 아이들이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놓여있다.
- ◆ 매일 개별적으로나 소집단으로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읽어준다.
- ◆ 사람 그림은 성차별적이지 않고 다양한 인종과 연령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와 같다.

이 책들은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만 아니라 아기를 기르는 가정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아기의 백일, 돌 선물로도 권할 만하다.

제랄다와 거인

토미통게러 글, 그림/김경연 옮김/비룡소/7000원



김랑의 · 서울, 초록별어린이집 교사

아침밥으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것이었지요.

제랄다와 거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험상궂게 생긴 거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있고 쇠창살 밖으로 어린아이의 손이 보입니다. 시작하는 장면부터 그림과 글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린아이가 보는 그림책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 그림책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읽다보면 이 그림책만의 색다른 고도 독특한 재미와 유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인 토미 통게러와 그의 작품들을 소개한 책에서는 이렇게 「제랄다와 거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일 뿐이다. 아이들의 정서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며 어떤 현상에 대해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일에 감동하고 사람을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거인은 딱치는 대로 마을로 가서 아이들을 잡아옵니다. 모든 아이들의 부모는 지하실에 아이들을 숨기기 바쁘죠. 더이상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거인은 배가고파 기진맥진합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제랄다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그 소녀는 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어느 날 아버지를 대신하여

음식을 팔러 장에 가던 길에 제랄다는 거인을 만납니다. 하지만 제랄다를 잡아먹으려고 바위 위에 숨어있던 거인은 기운이 없어 그만 바위에서 떨어져 기절하고 맙니다. 제랄다는 거인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먹은 거인은 제랄다의 음식솜씨에 감탄을 하게됩니다. 제랄다는 거인과 함께 성으로 가서 온갖 음식들을 만들며 살게 되고 그 음식을 먹은 거인은 더이상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은 다시 평화롭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제랄다와 거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랄다의 음식을 먹고 보기 좋아진 거인은 수염도 깎고 아름답게 성장한 제랄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되지요. 여기에 이 작가만의, 다른 그림책과 차별되는 유머가 있습니다. 또한 제랄다가 만드는 온갖가지 음식들은 너무도 신기하고 요리의 이름들



또한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름과 요리를 짝지어 찾기에 바쁩니다. 아이들은 처음 읽어줄 때는 심각하다가도 다 읽어주고 나면 환한 웃음으로 “또 읽어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지요.

6세나 7세 정도의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편집자 주: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정보'를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육정보와 아이들 양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E-메일로 보내면 서정운운영자와 고시환선생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답니다. 정보난에 올라와있는 질문과 답변중 「우리네 아이들」 독자에게도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실기로 하였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시면 Go Baby로!

아기가 종기가 납니다.

등록일 : 98년 9월 16일 등록자 : ID나들이

안녕하세요.

이제 7개월이 되는 여자아기의 엄마입니다.

아기가 신생아때 부터 작은 뾰루지가 나면 곧 커져서 종기처럼 곱습니다.

피부는 굉장히 깨끗하고 별다른 피부트러블은 없습니다.

목욕도 자주 씻기고 항상 청결히 하는데도

하나가 나오면 다른 자리에 또 다른 뾰루지가 납니다.

병원에서는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며 항생제를 주는데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위가 약해서 약을 잘 삼키지도 않고요..

지금은 곱을 때까지 소독을 해주다가 저절로 터질때까지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원인이 될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꼭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여성의 꿈은 아기들의 피부와 같아지는 것이라 했던가요

피카소가 죽을때까지도 추구하던 그림은

자신이 어릴적 그렸던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하고...

아이들의 피부에 깨끗함 이외의 다른 어떠한것이 있다면 매우 보기 싫고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이러할때의 답은 그냥 두십시오.

대분의 경우는 자연 소실되며 항생제나 기타 연고제를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

해도 눈으로 보이는 곳만을 가릴뿐 그 이상의 효과는 그다지 없으니 그냥두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은 태일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의 경우도 그 한 종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악이란 잘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것이 더 중요할때가 더 많답니다.

- 고시환 -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

현정부는 일본문화에 대한 문호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를 잠식시키는 일본문화를 보면서 또한번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우리나라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가 숙제로 남는다. 우리의 놀이문화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가운데 아주 반가운 책 한권을 만날 수 있었다.

최은경(전주, 금암어린이집 교사)/도서출판 다림, 홍양자 지음, 가격 15,000원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

“일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본인화’를 강요했다. 일제는 일본음악으로 만든 참가 교육을 통해 우리아이들에게서 우리 정서를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저자는 서문을 연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구전동요라고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가 있다. 이 노래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서를 빼앗기 위한 일본노래이다. 가위,바위,보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보편화되고 잘 알려진 놀이이기도 하다. 그렇다. 한국인의 정서를 말살시키려는 민족말살 정책에 의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의 놀이와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민족말살 정책에 의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의 놀이와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화되어 버렸던 것이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일제침략시대와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놀이나 노래를 우리는 검증도 없이 구전동요라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충격을 금치 못하는 내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는 총 7장의 제목을 가지고 쓰여졌다. 「1장 우리동요 찾기 기행」에서는 우리가 하는 놀이나 노래에 대한 뿌리 찾기를 쓰고 있고, 「2장 지금 이 땅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와 노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현재하고 있는 놀이나 노래

를 일본의 것과 비교하는 내용을 쓰고 있으며, 「3장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전래동요」에서는 여러종류의 놀이를 분석하여 일본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쓰고 있다. 4장, 5장에서는 일제시대 때의 음악교육과 창작동요, 전래동요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으며, 6장, 7장에서는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동요와 놀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사, 연구한 내용을 쓰고 있다. 빼앗긴 우리 정서를 되찾기 위해 방송매체가 해야 할 일과 부모, 학교, 교사, 음악가가 해야 할 일 등, 각 분야에서 우리정서와 문화를 전수하고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적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한국적 정서와 인성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방송매체에서 보여지는 문화는 과연 어느나라의 것인가? TV를 켜 놓고 불륨을 줄인 채 주시해보면 이웃나라 일본과 별 다를 바 없다. 어릴 적 유아가 때의 민족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전수하고,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꽃피우려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9개월, 우리 가락이 좋을씨고! - 헤민언니에게 보내는 답장

변미양 · 본회 명예회원

「아 ~!」

흥가분하다는 가벼움에 저절로 한숨을 돌리게 되네요. 언니!

약간은 잠이 모자른 듯한 노곤함이 있지만 오전 9시 30분, 남편과 아이를 보내놓고 있는 힘껏 기지개를 펴봅니다.

10개월의 임신 기간과 9개월의 육아시간, 항상 둘이 한몸이 되어, 오로지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너무 벅차고 힘겨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중 몇 시간은 육아나 가사에만 얽매이지 않는 나, '내가 선택해서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거예요. 이렇게 자유라는 거지요!

우리 아기 김가락은 다른 아기들처럼 고맙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빛나는 생명의 성장을 보면서 엄마가 되가는 사람으로서의 보람과 기쁨은 물론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더군요. 매일 매일 감사함과 부끄러움과 대견함이 보글보글 비눗방울처럼 뚝뚝 떠다니며 나를 신나게 해요.

그러나 다질된 인간관계와 활동의 제한, 혼자서 전부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움은 24시간 고립무원의 상자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한계로 다가왔어요. 늦게서야 돌아오는 남편과도 활기찬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고 넋두리와 잔소리만 쏟아 붓게 되더군요. 밀려오는 피로가 자꾸 쌓여서 나를 점점 쪼르라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한시를 놓게 된 겁니다.

아이 키우기를 함께 할 이웃이나 가족이 필요한 사람.

아이 키우기를 다른 일과 병행해서 해야 하는 사람.

아이 키우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보육시설은 꼭 필요하겠죠.

언니! 가락이가 보육시설에 다니게 되었어요.

가락이는 다행히 낯가림을 하지 않아 사람을 잘 따르는 데다 움직임이 많고 변화있는 환경이 즐거웁가 봅니다.

아침, 가락이 아빠가 출근길에 자전거에 태워 데려다 주는데, 올때도 아빠가 데려와 아기용 좌석에 앉히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 없어요. 첫날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을 뿐 단 한번도 울기는 커녕 짹짹을 하며 보육원 나들이를 반긴답니다. 오히려 보내는 내가 서글픈 정도로 말이에요. 어제 오후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가락이가 다니는 홈(Home)은 '마음'(한글로 부른답니다) 반인데요(0-12개월 아기들의 동이지요) 남자선생님이 담임으로, 10명의 아기들에 3명의 교

사와 1명의 보조교사가 있대요. 담임교사가(키야마 씨)가 현관을 들어서 가락이를 부르며 손을 내미니 가락이가 기어가 안기더라구요. 정말 마음이 놓이고 보기 좋은 모습이지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만 아이의 성장에 따라, 아이의 바깥세상은 점점 넓어지겠죠. '엄마의 방'에서 오후, 마루마당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아이의 세상을 찾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순리를 배우며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모아집니다.

전에는 내가 아이를 받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이를 보내고 돌봐달라는 학부모가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보육원에 가 처음 담임교사를 만났는데 슬며시 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 없더군요. 등에는 다른 아기를 업고, 가슴에는 가락이를 안은 젊은 남자 교사라서 그랬구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락이 엄마예요"라는 인사가 속쓰럽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서 말이에요.

보육교사이던 사람이 진짜 엄마가 되고, 더불어 보육교사를 하고....

정말 산넘어 산이지요. 그래도 더욱더 힘내세요.

나날이 커가는 가락이, 상구, 00,.....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모두 건강히 가을 맞이하세요!





알미운 아이

이선홍 · 나은미 남편, 이유빈아빠

내가 사무실에 묶여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하는 만큼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 아내는 일주일의 격무에 해방되는 토요일이면 거의 문어처럼 늘어져 낮게 낮게 방 바닥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IMF에 편승하여 흥흥해진 회사 분위기 때문에 자외반 타외반으로 새벽에 집을 나서 밤12시가 다 되어서야 문을 두드리는 골치 아픈 신세가 된지 서너달만에 내게 돌아온 것은 가정파괴(?). 매주 수요일은 아내를 도와야 한다고 간부에게 단호히 주장한 탓에 그래도 일주일의 하루는 눈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얼마전부터 아이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 했다. 현관문을 열어 재끼고 들어 서면 주르르 달려오던 아이는 간데 없고 방바닥에 누워 귀찮은 듯 잠깐 고개 돌려 쳐다 보곤 바로 텔레비전을 들여다 보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물론 나의 태도도 피곤에 지쳐 몇 달새 많이 변했음을 애 엄마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던차라 내가 먼저 주르르 달려가 "아빠왔다. 이놈아"하며 아이를 번쩍 안아 들면 그제서야 빙그레 웃는 얼굴을 보인다. 이 정도라도 내겐 신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는 이유는 '내가 너 때문에 더럽고 치사한 회사를 꼭 참고 다닌다.'라는 명분도 아닌 명분이 아이의 변화는 태도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나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해 달라고 한다면 모두가 웃을일이 뻔한데도 나는 그러고 싶고 몇날 몇일을 못본 아버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를 상상하며 출근을 한다.

은근히 열을 받아 가던 어느날 결국은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다. 회사가 엉망으로 돌아 가던 어느 무더운 토요일, 일과 시간이 훨씬 넘은 늦은 시간에 사장 눈치를 슬슬 보다 살짝 빠져나와 멀고 먼 2시간의 퇴근 길을 지나 집에 도착했다. 몇달째 그러하듯이 나는 멍멍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보았다. 아내와 아이가 방바닥에 온

몸을 바짝 붙히고 텔레비전에 눈을 박고 있었다. 아내야 긴장이 풀려 그런다지만 아이는 맨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빠가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똥굴 똥굴하는데 그만 화가 치밀고 말았다. "그래 니들끼리 잘살아 보라" 괜히 아내까지 싸잡아 화를 내고 말았다. 아이는 울고 불고 난리고 아내는 민방한 듯 어쩔줄 몰라했다. "내 인생에 희망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된일이고 아내와 아이 때문에 그럴 저런 살고 있는데 아이에게 푸대접을 받아서야....." 뻔한 네파토리를 읊으며 한참을 흥분하여 집안을 시끄럽게 했다. 흥분을 가라 앉히려 애를 썼지만 잘되지 않았다.아내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나..... 불쌍 사나운 그 기분은 아침에 눈을 뜰때까지도 가시지 않았다. 잠을 깨는 순간 들어온 아이의 얼굴 표정은 나를 경계하는 듯 하여 다시 한번 속이 끓어 올라 그대로 돌아 누웠다. 사실 몇일전 아내에게 "평일에는 아빠 얼굴도 못보여 주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아이가 좋아할 리가 없으니 신경 좀 써야겠다"고 하며 오는 일요일에는 어디로 바랍이나 썰러가자고 했을 만큼 나의 책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각을 하고 있었으나 유빈이와 같은 수준으로 사고를 쳤으니 속스러워 아내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 내 기분이야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아이는 말목장에 가자는 약속을 잊지 않고 내 눈치를 보며 엄마에게 말목장에 가자고 은근히 보냈다.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졌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엄마만 찾고 엄마가 잠깐만 안보여도 난리가 난다. 나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반응하여 아내의 핀잔을 받고 아내는 속으로 괴로워 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주위분들에게 아이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면 "니가 아이에게 미움 받을 일만 하고 있구나"라고 웃는다. 아이들은 다 아빠보다는 엄마를 좋아하게 마련이라나!



사이버 정보망

평등세상만들기

- 한국여성단체연합 -

"지금 한국 여성운동의 화두는 무엇일까?"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자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관련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니텔/나우누리 통신망과 인터넷에 "21C 평등세상 만들기"를 열어놓고 있다.

이곳의 [정보창고]를 뒤지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값진 정보들을 건질수 있다. 가족, 교육, 여성, 노동, 문화, 성,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여성노동관련 상담사례와 성/인권관련 대응지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회원마당]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있다.

생활속에서 느끼는 여성문제의 고민을 풀어놓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속내터]. 이런 문제는 여성단체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실]등 이 있다.

여성단체연합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비판은 한국의 여성운동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접속후 [가입하기]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찾아가시는 방법

나우누리, 유니텔 go women21

인터넷 www.women21.or.kr

찾아가시는 방법 -천리안.유니텔 go women21
인터넷www.women21.or.kr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평동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진왕이야기

잠자리 I

진왕(4세)이랑 욕상에서 날아 다니는 잠자리를 보고 있다가

진왕 : 선생님, 잠자리 잡아주세요.

교사 : 앉아야 잡지.

진왕이가 여기 저기 둘러보더니 기차 시소에 가 앉으며 힘껏 부른다.

진왕 : 선생님! 선생-님 앉았어요.

교사 : !!

잠자리 II

욕상에서 놀다가 점심 때 즈음

교사 : 애들아! 점심 먹으러 내려가자.

진왕 : 선생님, 잠자리를 못잡았는데요. 자꾸만 날라가서 못잡겠어요.

교사 : 그럼 잡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진왕 : (손을 모으고) 웅얼웅얼

교사 : 기도했니?

진왕 : 예

교사 : 하나님이 뭐라시든?

진왕 : '밥 먹고 와서 잡아라' 하신다요.

고추의 실종

물놀이 시간에 성주(4세 여아)의 벗은 몸을 앞뒤로 심각하게 바라보는 진왕이 교사와 눈이 마주치자 걱정스럽게 말한다.

진왕 : 선생님, 성주는 똥꼬만 있어요.

교사 : !!

IMF형 스티커

일찍 등원하는 진왕(3세 때) 멀리서부터 급하게 부르며 들어온다.

진왕 : 선생님! 나 스티커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도 한 개 붙여줄게요.

교사 : 그래... 여기 팔에다 붙여줘.

진왕 : 이거 내가 가져온 거예요(자랑스러워하며 선생님 팔에 붙여준다).

교사 : 이~잉!(그것은 음식점에서 나눠주는 선전용 스티커를 잘게 오려 만든 것이었는데 '통닭'에서 '닭'자가 잘려 나간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스티커를 하도 좋아하니 집에서 절악형으로 만들어주었던 모양이었다. 이 IMF형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는 오래도록 즐거워했다.)

☞ 이야기 둘 - 지운 게 아니었다구요!

계획서를 작성하다 틀린 교사가 화이트로 지우는 걸 본 효진이

효진 : 선생님, 거기다 왜 색을 칠해요?

교사 : 틀린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효진 : 으응?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얀색으로 칠했잖아요!

교사 : !!

☞ 이야기 셋 - 토끼야, 아~애빠

과학놀이 시간에 토끼를 관찰하며

교사 : 애들아! 토끼 먹는 걸 잘 봐요. 토끼는 앞니 두 개가 길어서 그 두 개로 씹아 먹어요. 토끼 이빨을 잘 보세요.

아이들 : 토끼야, 아-해봐. 얼른 아-해봐. 이 좀 보게

교사 : !!



어린이들의 목소리

어느 여름날의 독백

안광석 · 서울,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 치훈, 치원아버지

'나의 부모 나의 아이'라!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고약한 시어머니가 된다",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고"는 등의 말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주위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미래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르는 말일게다. 이는 한편으로는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수직적 교육방식의 재생산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도 있는 법하다. 나는 내 또래의 연배들보다 출생아 20-30년 뒤떨어진 교육, 문화환경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신작로와 논밭 길을 따라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산골의 초등학교에 다녔고, 중학교 3학년 때서야 전기가 들어왔으니 말이다. 당시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변압기를 보고 신기해하는 주민들에게 전기기술자들이, 그것은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먹는 장치라고 설명해주는 것을 대부분은 믿는, 그토록 문화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생계차원의 농사일에 바쁜 부모교육방식은 땅을 터전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게 전부였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시절은 아침에 밭으로 일하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들에서 놀다가 목마르면 까만 고무신 벗어서 시냇물 떠먹고, 지치면 밭이랑, 풀밭에서 낮잠 자곤 하던 것들이었다. 굳이 낭만적으로 말한다면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의 아이들에게 며칠만이라도 그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아파트의 회색복도 담벼락은 치훈, 치원에게 너무 높은 것이어서 가까이 와 닿은 북한산의 초록정취는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나마 그들이 어린시절을 회색 빛으로 회상하지 않기 바라며 가끔은 초록세계를 접하게 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러한 유순한 분이신데 자식들의 교육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시겠다는 확고한 분이였다. 무조건적이였다. 물고기는 큰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어머니 덕분에 나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유학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어머니 곁에서 일흔 이상을 자본적이 없게 만든 시작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인근의 도회지인 충주로 전학을 해서 3살 위인 형과 함께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했다. 연탄불과 석유곤로를 이용해서 취사를 하고 빨래도 물론 손수 했다. 초겨울이 되면 농사건일을 끝내신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러 오셨는데 일년중 그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고, 이른봄에 다시 농사일 하시러 우

리를 떠나 시골로 가시는 날이 내게는 가장 슬픈 날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막 내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며, 그나마 하숙도 아닌 자취를 시켜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했을까마는 자식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했던 그 일정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 어려서부터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야 했던 탓에 풍부한 감성과 인격형성에 긴요한 가족간의 사랑, 부모로부터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은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이었던 것 같다. 이에 반해 아버님은 자식들의 교육자책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다. 시골의 가부장적, 유교적 관념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분이어서 엄격 일변도였다. 아들만 네명 있는 집안에서 부드러운 환경이 어렵기도 했겠지만 여하튼 아버님이 계시면 집안에는 큰 웃음이 없었고, 어린 나또한 아버님이 오래오래 동안 외출하셨으면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 아이들이 아무 때나 내통에 올라타 '아빠!'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다. 아버님은 '정직'을 무척 강조하셨다. 초등학교 2학년때인가 싶다. 한번은 하교길에 조그마한 크레파스를 주워 가지고 왔는데, 아버님은 격노하시고 담장 불건이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길로 산길을 따라 1시간 반을 걸어 그 자리에 도로 놓고 온 적이 있다. 아직도 그 크레파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느덧 나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직업이 선생인지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다. 아이 엄마로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들 교육문제, 가사활동 등에 참여하라는 편지를 자주 받고 있는 터에 이 글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나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못 받는 원고료(?)를 능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지면을 주로 아버지로서의 나를 반성하며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치훈, 치원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약 2년전에 귀국하여 한동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집에서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배우고, 밖에 나가서는 모든 것은 영어로 하는 이중언어 생활을 했다. 당연히 아이들은 혼돈스러웠을 것이고 실제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쪽이 같았다. 귀국해서 보니 이는 더욱 두드러져 아이들의 언어감각은 같은 토래의 아이들보다 한참 뒤쳐져 있었다. 기능적 측면에서 지진아였다. 그래서 처음 다니던 유치원에 아이엄마가 소환(?)당한 적도 있다. 최근에 치훈이는 숫자놀이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덧셈은 손가락을 폼다, 오무렸다,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간신히 이름 석자 그릴 줄 알았던 나에게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흥분한 나에게 아이엄마는 "같은 토래 아이들은 곱셈까지 해"하고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물론 아이엄마도 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지만 그냥 너털웃음으로 넘기기에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의 유치원 교육, 가정교육조차도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잔기술 습득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바이엘 혹은 체

르니 몇 번을 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내아이는 음악적 소양이 뛰어난 것이고, 이미 나뭇셈을 하고 있으면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우리들은 착각한다. 판에박힌 그림그리기 기술의 전수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닫힌 교육의 결정판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며 내아이를 교육시킬까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내 아이에 눈멀어 행여 객관적인 판단력과 증증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퇴비가 완전히 썩지 않으면 오히려 식물의 발육에 해가 되듯이 부모들이 그릇된 교육 방식은 자유방임주의식 교육보다도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부모로서의 나를 성찰해보고 주위의 충고에 귀기울이고자 한다. 내 아이에게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그런 인스턴트식 자극보다는 오랜 동안 우러나오는 은은한 감동을 주고 싶다. 작은 일에 감동할 줄 아는 풍부한 감성을 지닌 순진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순발력은 없지만 영롱한 상상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나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그들이 성장하는 길목에 기회의 장을 열며서 마련해 줄 것이다. 그 다음의 일들은 그들의 몫일 것이다.

나의 하루는 네살배기 치원이에 의해 시작된다. 아이엄마가 일찍 출근하고 나면 이어서 치원이가 일어난다. 이육고 치원이가 나를 깨우고, 나는 큰 놈 치훈이를 깨운다. 세남자끼리 아침 챙겨먹고 나면 치원이랑 양치질 문제로 한바탕 씨름. 이번에는 아빠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집 차를 탈 것인가에 대한 치원의 갈등. 직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잠자리에 누워 아이들에게 동화책 한번 제대로 읽어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 되도록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내보려고 저녁식사는 집에 와서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아빠 또 학교 가야돼?"하며 묻는다.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다.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각에 연구실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위안을 해본다. 나와 아내는 뚜렷한 교육철학은 없지만 자그마한 몇 가지들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집에서는 되도록 텔레비전보다는 고전음악을 틀어놓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를 포함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텔레비전에 더 중독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상스이 동물의 사육제를 들으며 그 악장이 어떤 동물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고 치훈이와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가능한 한 "안돼, 하지마"라는 말을 아끼려 노력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안돼'라고 할 경우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반드시 얘기하려 한다. (그러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또한 적어도 하루 한 권의 동화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그들로부터 느낀 점을 들어보려 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살 때 치훈, 치원이와 자주 가던 어린이 백화점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어른의 고정된 눈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라' 아이들의 잠재성과 자녀교육에 부모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말일게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 아이들의 내일이 희망이 되고,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위양자
본회 전 부회장

나 이 서른다섯의 가을입니다. 절반쯤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 참으로 빠르게 지났구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누구나 할 것없이 농사짓는 집의 자식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도시의 자식들만을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었던 기억이 없는 것은 아마도 제가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일은 하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밥은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는 세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정부의 미봉책으로 어찌 영찌 먹고 살고 그러면서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먹고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내놓기로 마음먹고 적게 벌어 적게 쓰더라도 실업만은 피하여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양심있는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을 위해 열심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값있고 필요한 일에도 쉽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 이쯤에서 우리 인간들은 오늘, 현상의 유지를 위한 노력들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이 아름다운 노력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약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기억속에서 농부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우리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도시인이 되어 아파트라는 인공의 숲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산이고 논이었던 땅들은 빗바랜 사진첩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은 전원생활이라는 사치나 오갈데 없는 사람들의 도피처로 치부되는 오늘날, 어떤이는 그 개발의 이익이 돈있는 사람들의 손으로만 들어가서 그렇다고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점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의 이익을

좀더 공정하게 나누었다면 오늘,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인간에겐 자신의 사랑의 열매인 자식들을 위해 내일을 준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온 우리 어른들은 자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이라는 명분으로 자식들의 내일까지 차입해서 써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진실로 삶의 질을 높여야할 사람들의 삶이 보장이라도 되었습니까? 없는 사람끼리 뽕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었던 울타리조차 할 수 없었던 집들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라지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내놓은 돈있는 사람들이나 돈가지고 할 수 있는 일로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에겐 도시개발로 주어진 임대아파트마저 하룻밤 등불일 곳이 되지 못하고 거리로 떠밀어 내는 보이지 않는 손. 어쩌면 몇 안되는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독차지 하기 위한 음모일지도 모르는 21세기 기주촌 한국의 현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함께 꿈을 꾸어야 할까요? 오늘 거리의 노숙자들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알토랑같은 내지식들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갈되어 가는 지구를 지속 가능한 삶의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 말입니다.

저는 우선 가난해지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사람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까지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먹은 만큼 싸야 인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쌀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도 삶에 필요한 것만 해야지 누구보다 더 잘나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머리 속에 집어 넣다 보니 본래의 쓰임대로 쓰이지 못하고 온갖 부정을 위해 쓰이고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여러일들과 함께 자발적인 가난으로 나눔을 내일로 되찾는 - 공존의 삶을 되찾으려는 희망을 - 이 누추하지만은 않은 가을의 결실로 간직해봄이 어떨까요?

이제 부끄러운 생각을 글로 풀어낼 것이 바닥이 나 갑니다. 저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울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보육계 동향

미래 유아교육학회, 98주계 학술대회

- 일 시 : 1998년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2층 어학원 세미나실
- 문 의 : 02-742-4248
- 대주제 : 수준별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방향과 실제
- 기조강연 : 수준별 유치원 교육과정 방향과 실제-이영석교수(성균관 대학교)
- 특별주제 :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방향-유아교육개혁 추진 경과 및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보고

평화보육교사교육원, 유아교사실기 강습회

- 일시 : 1998년 10월 24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 평화보육교사교육원
- 교육내용 : 11월 단원별 실기교육지도
- 문의 : 02-744-4958, 762-4558

서울 YMCA 10월 유아실기 연수

- 서울 YMCA가 10월 특별연수로 재봉잔치 및 체육잔치 실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일시 : 1998년 10월 17일(토) 오후3시-6시
 - 장소 : 서울 YMCA강당
 - 문의 : 02-732-8757, 391-9451

특수체육지도자 과정 연수생 모집

- (사)한국체력향상협회에서 지체 장애인의 체육을 담당할 체육지도자 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 자격기준 : 장애인 관련 기관 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일시 : 매주 토요일 1시 30분 -6시 30분(총 6주간 30시간)
 - 문의 : 02-426-4770

인간발달.복지연구소, 심리검사 및 상담

- 인간발달.복지연구소가 학습상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 검사종류 : 지능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성격유형검사, 투사검사등
 - 치료교구 : 놀이치료, 학습장애 프로그램, 발달장애 프로그램
 - 문의 : 02-583-7017

보육계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중입사회복지관, 가정유아지도자 일선 안내

맞벌이 부부등 수요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언어, 사회, 신체,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가정유아지도사를 알선한다.

문의: 02-360-2599

한국보육정보연구소 교육강좌

[박물관 활용교육]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시대라 불릴 만큼 누구에게나 폭넓은 문화예술 감각이 요구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박물관을 견학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우리 문화유산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교육을 시도하고자 한다. 유아/초등학생 지도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박물관을 활용한 유익한 학습과 여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 교육과정: 10월 3주~11월 첫주
- 1강 박물관 새롭게 다가서기/ 박물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 2강 박물관 활용을 통한 예술교육
- 3강 박물관 활용을 통한 과학교육
- 4강 박물관 활용 워크숍(박물관 견학)
- 수강료 40000원(회원10%할인) / 문의전화 (02)268-3954(담당자 이선주)
- 화요저녁강좌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교육실
- 일시 : 10월 13.20.27 (화) 저녁 7시~9시/ 11월 7일(토) 오후
- 토요강좌 - 장소 :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육실
- 일시 : 10월 17.24.31(토) 오후 3시~5시/ 11월 7일(토) 오후

통합예술교육 '주게스토메디' 초급과정

- 아이들과 함께 열어보는 어린이 음악회 -

-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교육과정: 1강 인형을 통한 통합적 음악교육
- 2강 새로운 노래와 놀이 만들기
- 3강 음악감상을 통한 미술교육
- 4강 음악적 즉흥력과 상상력 키우기
(리코더와 리듬악기를 활용하여)
- 일시: 1998년 10월 17일-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8시까지(총4회 16시간)
- 교육비: 8만원(교재 포함-음의 라비린트 /회원10%할인)

보육계 동향

- 장소: 영1동 복지관내 어깨동무어린이집 (영등포역에서 2분 거리)
- 접수/문의: 한국보육교사회 275-8505/268-3954(접수마감 10월 14일까지)

책소개

[아이들이 실천하는 생활중심 환경교육]

다음세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00원

지난 해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시민운동지원기금의 후원으로 연구개발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51개와 이에 따른 교육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연체험 여름캠프 프로그램과 부모 환경교육 자료가 들어있다.

시내 대형서점과 보육사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구입할 경우 회원가 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단독비행 — 혼자 사는 즐거움]

캐롤 M. 앤더슨 · 수잔 스튜어트 지음/ 엄영래 옮김/ 값 9,700원/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이 책은 미국에서 가족 치료가로 일하는 두 사람의 독신 여성이, 베이비 붐 세대이며 60년대 문화 변동기를 겪은 40세에서 50세 정도 사이의 독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펴낸, 심리학적 현상 분석이자 개인의 적응을 돕는 교양서이다. 여기서 독신이란 미혼, 이혼, 간헐적 동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식과 소식

제3차 여연 이사회

지난 9월 14일 여성평화의집 지화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미디어 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정책토의와 함께 실업여성극복지원센터 구성에 대한 논의와 추가경정 예산 건의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4차 한국보육교사회 이사회

9월 5일 본회 사무실에서 제4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법인추진작업 경과 보고가 있었고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인화추진작업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으로 법인출연기금을 모으자는 제안이 나나와 각 지부의 논의를 거쳐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체계를 재검토하여 다음 이사회 때 확정짓기로 했으며 '현장연구공모사업'과 '어린이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제도 개혁을 위한 세미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98년 수익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일일주점은 세미나와 후원의 밤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연구소 동정

1.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영아보육교사 전문가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보육에서 필요한 교사교육내용을 연구개발하여 98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9일 영아보육교사와 연구원들과의 간담회를 실

시하였으며, 영아보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현장에서 갖는 어려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한다. 영아보육시 필요한 내용에 관한 의견을 한국보육정보연구소(268-3954)로 알려주시면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방과후 아동을 위한 [인생설계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인 이 프로그램은 "When I'm Grown"이라는 외국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재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사춘기와 성장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태도, 기술들을 습득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재 개발이 완성되면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보육교사회 준비위원회

하나 - 지난 9월 21일 본회사무실에서 서울보육교사회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98년 내 창립총회라는 목표아래 준비모임을 체계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보육교사회 창립준비위원인 오윤정, 박영미, 이윤경, 이경녀, 김진숙선생님과 정희연본회회장과 박정애조직부장이 참석하여 창립총회 일정과 조직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서울전체의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준비위원의 지회순회방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 - 그림책소모임이 운영중입니다.

상반기 교육센터 '그림책 100권보기' 강좌가 끝난 이후 소모임이 7명으로 구성되어 격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식과 소식

주로 그림책 비평과 활용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니 서울회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 북부지회 재결성.

그동안 3-4년간 모임이 와해되었던 북부지역의 교사들이 다시 뭉쳐 북부지회를 띄웠습니다.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등지의 교사들로 모임은 한달에 한번 어린이집을 돌아가며 하고 있고, 현장연구일기를 써와서 토론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회장은 박영미 한미어린이집 선생님이시고, 총무는 황호정 우리어리집 선생님이십니다.

광주보육교사회

광주보육교사회는 광주·전남민주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실직여성가장 자녀를 위한 보육도우미 지역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실직으로 인한 여성위기 가정의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사업기간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이다.

인천보육교사회

모두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씩 힘을 내시고요, 서로에게 작은 힘이거나 복돋아줄 수 있는 가슴 뿌듯한 추억 되시기를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미향 선생님(10/14), 백혜경 선생님(10/18), 김동준 선생님(10/24)

9/18(금) 인천보육교사회는 9월 회원의 날을 통하여 한국보육교사회의 법인화 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원 1인당 2만원씩의 법인출연기금을 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9/22(화) 이상미 선생님께서 예쁜 딸을 낳으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0/11(일) 제3회 가을운동회가 보육교사 풍물패 '메나리'의 공연과 함께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으로 진행됩니다.

천안보육교사회 준비위원회

천안보육교사회 준비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서부신협강당에서 '그림책 강좌'를 30여명의 현장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천안보육교사회 준비위원회에서는 11월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여 교사회를 알리고 심기일전하기 위해 강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강의는 김랑희(서울, 초록별어린이집 원장, 그림책 소모임장)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

회비를 내셨습니다.

(98년 8월 29일~9월 25일 현재)

98년 3월분

서울: 추영, 박혜영

98년 4월분

서울: 추영, 박혜영

소식과 소식

본회 9월 일지

98년 5월분

서울: 이애용, 추영, 박혜영, 김미선

98년 6월분

서울: 추영, 박혜영

광주: 주경남, 박화명, 최미라, 유희원, 김경아, 이정미, 배미정, 김영금, 김영란, 김수중, 박달신, 천미애, 신연주(지난 달 기재누락분)

부산: 김정현

98년 7월분

서울: 김진숙, 서미연, 이선미

부산: 김양희, 김옥정, 김효정, 박찬주, 박희순, 윤현진, 이미애

98년 8월분

서울: 김옥희, 서미연, 이운경, 이선미

부산: 김효정, 박찬주, 김희정, 최정임, 한혜정

98년 9월분

서울: 주혜민, 박인해, 김수연, 이경녀, 황호정

인천: 문유미, 이숙희, 이 순, 이경미, 박미향, 손수정, 이은희, 최은하, 이진실, 이연순, 임민행, 임미녀

경기: 류필녀

기타: 정희연, 임남희, 서은희, 최순옥, 박정애, 이선주

98년 10월분

경기: 류필녀

98년 11월분

경기: 나은미

98년 12월분

경기: 나은미

오윤정선생님께서 2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 | | |
|-------|--------------------|
| 9 / 1 | 집행위원회 회의 |
| | 그림책 소모임 |
| 5 | 천안보육교사준비위원회 그림책 강좌 |
| | 이사회 |
| 8 | 여연 조직위원회 회의 |
| 10 | 집행위원회 회의 |
| 14 | 여연 이사회 |
| 15 | 그림책소모임 |
| 18 | 집행위원회 회의 북부지회모임 |
| 21 | 서울보육교사회 준비모임 |
| 22 | 집행위원회 회의 |
| 29 | 집행위원회 회의 그림책소모임 |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실직여성가장에게 따뜻한 겨울을

실직한 여성가구주(가장)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쌀 또는 연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IMF사태 이후 대량실업 속에서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실업극복 국민운동' 공모 사업에 신청한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을 아래에 실으니 실직여성가장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신청기간 : 9월 21일(월)-10월 15일(목)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세대주거나 실질적인 여성가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의료보험청구서 사본, 모자가정증명서(해당자), 구직표접수증 사본(구직표가 없는 경우, 접수기관에서 작성 가능),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지원신청서(한국여성단체연합 양식),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인 여성가장임을 증명하는 사회복지사 추천서(해당자)

지원내용 : 14만원에 해당하는 쌀 또는 연료 구입 쿠폰 제공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도별 등록창구

시/도	지 역	담당단체	연락처
서울	종로, 중대문, 성북, 종로 송파, 강남, 강동, 서초 강서, 마포, 서대문 구로, 금천, 광명시 양천, 영등포, 은평 도봉, 노원, 강북 광진, 성동, 중랑 관악, 동작, 용산	한국여성민우회 실업극복지원센터 송파 일하는여성의집 서울강서양천여성회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기독교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74-5755 409-9535 605-8455 867-8668 643-5016 999-9221 461-6251 855-8494
	영도, 사하, 동래, 사상, 북구, 연제, 해운대, 강서 금정, 남구, 진구, 동구, 수영구, 서구, 중구, 기장군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전화	051-504-6549 051-817-6474
대구	달서, 서구 중구, 동구, 북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대구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회전화	053-427-4577 053-424-6885 053-475-8086
	서구, 남구, 동구, 중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전화	032-862-1007 032-514-3408
광주	광주전역	광주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062-225-0152 062-522-3029
	대전전역	대전여성회	042-257-3534
울산	울산전역	울산여성회전화	052-246-1366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공주시 안산,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시흥 수원, 광명, 오산, 안성, 용인, 이천 고양, 의정부, 동두천, 파주 김포, 부천	성남여성일하는여성회 한여성노동회 안산지부 안양여성회전화 수원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0342-751-5599 0345-494-4362 0343-383-6808 0331-238-1564 0344-919-1195 0341-986-6007/8
강원	강원전역	강원여성회전화	0391-646-1985
	충북전역	충북여성민우회	0431-263-1933
충남	충남전역	대전여성회	042-255-3534
	전주, 김제, 정읍, 남원 군산, 익산	전북여성노동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0652-254-3460 0653-851-2453
전남	광주 이외 전남지역	광주여성회전화	062-363-0485
	경북전역	포항여성회	0562-75-7436
경남	창원시, 진해, 거제, 양산, 김해 마산시, 진주, 사천, 통영	경남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1-82-9605 0551-95-5396
	제주전역	제주여성회	064-49-0261



편집부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업의회에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우리네 아이들」에 '어린이와 건강' 원고를 주신 인의협에 감사드리고, 주필진이셨던 정기현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자보시라 노숙자 진료하시라 바쁜 와중에 원고를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동안의 원고는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회원모두와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호부터 '어린이와 건강' 필진이 고시환선생님으로 바뀝니다.

단국대학교 소아과학교실에서 재직중인 고시환선생님이 귀한 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고시환선생님은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본회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어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아이들」독자가 선생님의 글을 읽고 현장에서 활용을 잘하는게 보답이면 보답이겠지요.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어탈한 한가위!

여느해와는 다른 한가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고향의 발걸음은 어느해 보다 많다고 하네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고향을 찾나봅니다. 회원여러분 마음만은 가득가득한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원고받기가 갈 수록 힘들어지네요.

박정애편집부장의 능력도 이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화하면 '무슨일 때문이에요?' 라고 묻는 회원들! 원고청탁하기도 더이상 어려워지고 있고 정말이지 괴롭습니다. 지구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 좋은 글좀 올려주세요. 자발적으로요.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아닙니까!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강은향, 황은미, 용현정

6개월 구독 : 박미숙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 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천리안
GO BABY

하이텔
GO BABY

유니텔
GO BABY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271-1547-8 FAX. 02)271-1548
ID KDRI8EBO(아이텔) ZPIBABY(천리안)